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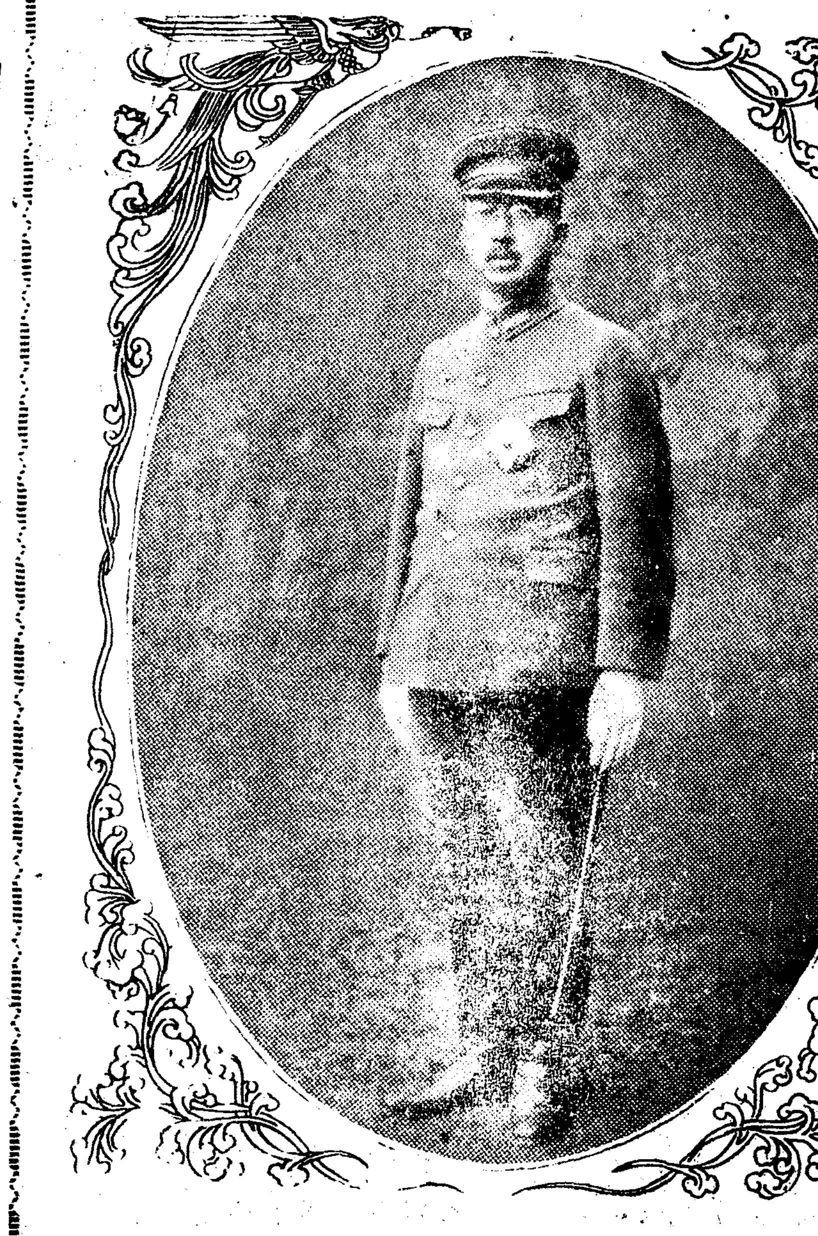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皇國臣民ノ誓詞

(其ノ一)
一、私共ハ大日本帝國ノ臣民デアリマス
二、私共ハ心ヲ合セテ天皇陛下ニ忠義ヲ盡シマス
三、私共ハ忍苦鍛錬シテ立派ナ強イ國民トナリマス

(其ノ二)
一、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
二、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
三、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錬力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



天皇陛下의御聖德

御鴻業完成에夙夜御精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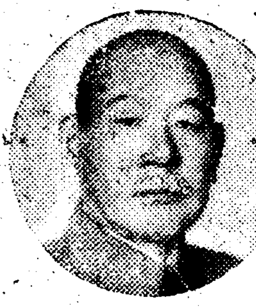
御稜威의光輝, 戰捷의 榮光이 燦然이 빛나는 昭和第十四年의 [illegible] 神嚴이 極하옵시게도 [illegible]에大本營을 두시옵산 後 第二回의 佳春을 마지옵신 大元帥陛下께옵서는 聖壽 御三十九歲를 迎하옵신다 皇后陛下께옵서는 御年 御三十七歲의 春을 마지옵시고 御履事는 陽春二月頃으로 益益 御健康하옵시며 又 大宮御所에 계옵시는 皇太后陛下께옵서는 御年 御五十六歲의 新春을, 마지옵신다 [illegible] 大元帥陛下께옵서는 興亞의 御聖業에 [illegible] 大方針을 세우옵시고 [illegible]

四方拜와歲旦祭

[illegible]

貴重한鮮血로서 歷史를創造!

朝鮮總督 南次郞



玆에 光輝 있는 第二의 新春을 迎하야 國內二千三百萬 同胞와 共히 삼가 皇室의 彌榮을 奉頌하고 아울러 皇軍將兵의 武運의 大勝을 慶賀한다.

事變은 이미 滿一年有半, 本日로써 第三年에 入하며, 事態는 愈愈長期持久의 第三階段에 [illegible] 國民의 覺悟는 益益 [illegible] 하는 時期이나 年頭에 際하야 半島官民과 共히 時局對處의 決意를 새롭게 하라고 생각한다.

大抵本事變은 다만 動員兵力量과 交戰地區의 廣大, 及世界的 干涉의 深刻複雜微妙한것으로써 未曾有의 規模라고 할뿐아니라 그歷史的에 있어서도 亦前古에 보지못한것임은 조금이라도 事變의 眞相을 洞察하는者의 理解하는바이다.

卽東亞의 各民族은 古來膚의 色이 靈明함과 가티 서로 血液의 源流를 密接하게하고 文化의 交流를 交하면서 다만 政治의 部面에서 各各國을 立하고 覇를 爭하야 內外의 治亂이 無常하며 盛衰興亡을 反復하야 數千年을 經過하여왔다. 特히 暗黑의 中世를 經하야 近代國家의 時代에 移行하자 日支二大國民은 [illegible]

004346

萬難을排除하고 大使命에邁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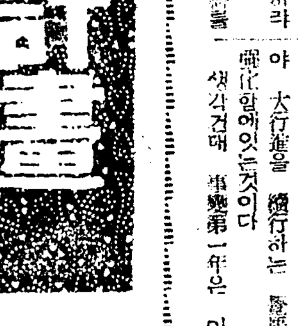
政務總監 大野綠一郞

玆에 昭和十四年新春을迎하야 皇運의 [illegible] 奉祝하고 [illegible] 昭和十二年七月 [illegible] 政權 [illegible]

[illegible] 이미中原의 [illegible] 一地方軍閥에 [illegible] 長期抗戰의 [illegible] 그리하야 어제事變은 武力戰 [illegible] 長期建設의 段階에 移行하야 [illegible] 帝國의 [illegible] 興亞의大業을 分荷하라 하는 各新政權의成長은 [illegible]

國民精神總動員으로 不離一體機構化

陸軍大將 川島義之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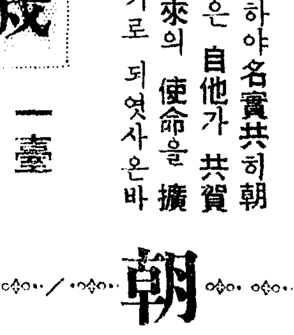
資源産業을開發하야 國防觀念을强化

朝鮮軍司令官 中村孝太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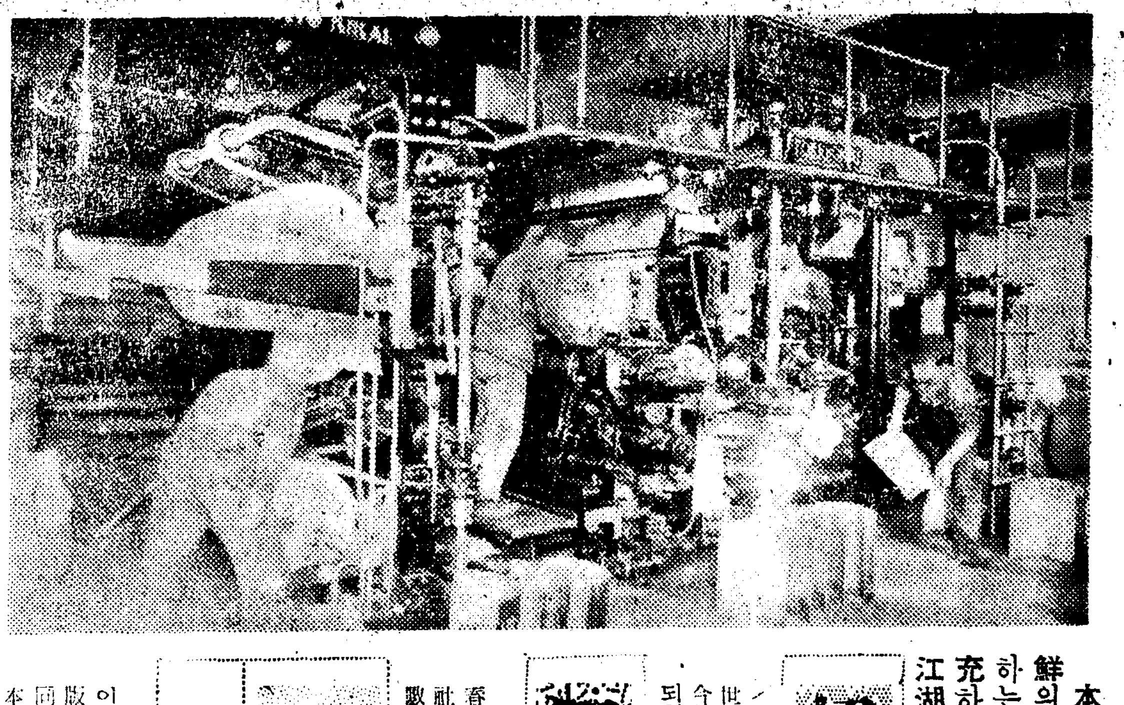
玆에 征戰第二年의 新春을迎하야 [illegible] 皇國國運의 隆昌을 祈願한다. [illegible]

新年頌(上)

李勳求



乾坤一擲의 [illegible] 己卯의 元旦을 마지하엿다 [illegible]



躍進本報의新年三大計畫

本社가 革新以來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야 名實共히 朝鮮의 代表的 言論機關으로 大成 하엿슴은 自他가 共賀하는바어니와 新春부터는 一層 新聞 本來의 使命을 擴充하기위하야 左의 三大事業을 斷行하기로 되엿사온바 江湖 諸位의 一層 愛護를 바라나이다.

超高速度輪轉機 一臺增設

本社가 朝鮮新聞으로는 第一先驅으로 [illegible] 世人의 周知하는바이지만 事變以來 [illegible] 今年에 다시 高速 十六頁 [illegible] 되엇다. 本社는 이로써 一層 [illegible]

通信網擴充 內外地特派員 陣容整備强化

本社가 일찍기 各重要支社局에 通信員을 特派한것은 旣報한바나 今春에 드러서는 一層 通信의 迅速, 敏活을 期키爲하야 各道廳所在地 支社에 特派員을 增設함은 勿論, 東京支社에는 通信部를 設置하고 [illegible] 數三海外支社局에도 特派員을 配置하야 通信網의 擴充, 强化를 꾀한다.

滿支版實施 朝夕刊八版制의偉容

滿洲及 北支에 百萬의 同胞가 [illegible] 우리의 重大關心事다. 이곳에 充分한 報道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本社는 新春부터 滿支版을 發行하야 在住 百萬同胞의 活動狀況을 時時刻刻으로 報道하야 現在 同胞는 勿論, 今後로 갈 數十萬移住民의 [illegible] 되고저 하는바 이로써 本紙는 朝鮮新聞界의 未踏境인 朝夕刊 八版制를 實施하게 된다.

朝 鮮 日 報 社

社說

新年을 迎하면서

一

多事多難하던 昭和十三年도 어제로 곳을 맛고 光明과 希望으로 充滿한 昭和十四年의 新春을 오날로 마지하엿다. 이때이날에 잇서서 우리는 一億民衆와 더부러 먼저 聖壽의 無疆하심을 奉賀하오며 皇室의 御安泰하심을 奉祝하는다. 特히 이 新年은 支那事變이 勃發된以來 두째번의 新年이다. 皇軍將士가 忠忠誠勇하야 戰必勝 攻必取로 北京과 南京은 固交討龍論하고 徐州 廣東을 陷落하고 蔣의 根據地인 武漢三鎭을 攻略하야 武威는 中外에 떨치고 國光은 世界에 빗나게하엿다. 이것이 御稜威의 所賜임은 勿論이어니와 皇軍의 忠勇과 犧牲과 苦戰의 結果임을 想到하면 實로感激과 感謝가 油然히 소사남을 禁할수가업다.

二

蔣政權은 아직도 容共抗日의 迷夢에서 覺醒치못하고 虛張聲勢로 徹底抗戰을 呼號하고 잇다. 그러나 그勢力은 벌써 四川과 및其他 奧地로 退縮되여서 僅히 餘喘을 保全함에 不過하다. 皇軍은 이에 對하야 徹底打擊의 氣勢를 거두지안코 努力하는中이요, 다른反面에 臨時 維新의 兩政權은 新生의 氣力을 가지고 新支那政權의 樹立의 段階로 邁進하고잇스며 帝國政府가 發表한 東亞新秩序建設의 歷史的大方針에 呼應하야 자못 活氣잇는 步武로 進就하고 잇다. 支那民間의 具眼者들도 蔣政權內部에서 安協和平論을 唱道하야 亂發이 생기는 光脈이 뵈일뿐아니라 多數가 新中國政權에 來參하는 現況이다.

三

英米佛等 列國은 事變에對한 認識錯誤와 및 自己의權益擁護에 汲汲한 남어지 帝國政府에 不當한 要求를 提起할뿐아니라 他一方에 잇서서 蔣政權에게 借款을 供與하는等 東亞新事態에 背馳되는 動向을 示하는 한편遺憾事다. 그뿐아니다 蘇聯은 中國共產黨을 操縱하야 그東亞赤化의 陰謀한 計策을 實現할 機會를 捕捉하려고 陰으로 陽으로 蔣政權을 援助하고 庇護하고 잇다. 이것은 防共의 鐵則에 비추어서 斷不容貸할것이다. 이와가튼 國際關係는 蔣政權의 延命에 따라서 漸次로 改善될것이어니와 直接과 間接을 勿論하고 對蔣援助는 事變의 自體를 擴大延長식키는것으로 이것을 根絶케하는때에는 가장 注意와 努力을 要하는바이다.

四

이와가튼 內外情勢에 鑑하야 新年을 마지하는것은 時期的 意義가 기픈일이다. 事變以來 銃後國民의 赤誠奉公하는 熱과 誠이 充分히 나타낫다 그러나 事變의 前途는 아직 遼遠한바가잇고 또 新東亞建設의 歷史的 大事業을 覺悟에 直面한 一般民衆은 이新年 이날에 重大且 深固한 決心과 意氣로 勇往邁進치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이것은 第一線에서 苦鬪하는 出征將士와 犧牲과 苦難을 나누어서하는 思念이 잇스면 足할것이다. 當局에서도 民衆을 指導하야 이 至大하고 至難한 聖業에 總力을 傾注하고 잇는터인즉 億兆一心 精力과 物力을 다하야 目的을 達成하는 最後까지 꾸준히 努力을 繼續하여야할것이다. 이것이 新年의 希望이요 光明의 길이다.

汪精衛重大聲明

日支和平交涉開始要望

汪精衛

【香港三十日發同盟】 重慶脫出以來 그去就에 對하야 全世界의 注目을 集中하고 잇는 汪精衛는 三十日午後九時 蔣介石及 國民黨中央政治會議、中央執行委員會、中央監察委員會에 對하야 如左한 重大메세ー지를 發表하엿다

聲明內容

去四月에開催되엿든 臨時全國代表大會時에 發表된 中國現在의 抗戰理由에 關한部分에 左와如한一節이잇섯다 一九三四年塘沽停戰協定締結後오랫屈辱을참고 日本과의 交涉에應하여온것은 오로지 軍事行動을 避하고 다음과가튼 二事項을 平和的方法에 依하야遂行코자한때문이엿다 卽二事項이란것은 第一은北支諸省의 **安全**을保障하고 第二로東北四省問題의 合理的解決을 實現코저한것이다 即政治的으로 我等이 要求하는最少限의 條件은 我國에 잇서서의 外國權益不侵害、獨立의保證、領土保全이다 他方經濟的으로는 我等의 指導方針은 互惠主義와平等이엿다 그런데 一九三七年七月 蘆溝橋事件勃發로 支那는上記한바와如한 平和的解決에의希望이到底히 實現되지못할것을알게되자 武器를들고 抵抗치안흘수업게되엇든것이다 그런데 日本政府는 去十二月二十二日 聲明에잇서 日支國交再調整에 關한 日本政府의 根本方針을 闡明하엿는데 右聲明에强調된 第一의點은善隣及反共主義이다 即右聲明은 日本은支那에對하야 領土나 賠償을 要求하는것이아니며 日本은 支那의主權을 尊重하는것으로 支那의完全한 獨立을 確保키爲하야는 日本은 日本이 明治時代에 實行튼 政策의 例에依하야 日本人이 支那에서 自由로히 生活하고 또 商業을營爲할수잇는 代價으로 日本은 支那에 對하야租界를 返還하고 또는 支那에잇서서의 治外法權撤廢를 同意코저하고잇다 日本政府가 如斯한 **宣言**을嚴肅하게發表한以上 平和的手段에 依하야 北支各省의 安全을 保障할수잇슬뿐안니라 또 今次事變의過程에잇서서 喪失된領土까지도 回復하고 如斯히하야 支那의領土、主權、行政的獨立及 領土의保全까지 可能할것이다 따라서 我等은 大會의宣言에따라 北支四省問題의 合理的解決을 圖謀하기爲하야 吾人의 態度를決定하고 어떠한 機會를 取하여야할것이다

第一點은 防共提携다 이問題는 過去數個年에亘하야 日本政府에 依하야 屢次提議되어와던것이다 그러나 我等은 日本과의 如斯한防共提携는 支那의 軍事的及 政治的問題의干涉에까지 發展할 可能性이 잇다하야 이에對해서 疑惑의念을 抱懷하고잇섯다 그런데 日本이 日支防共協定은現存日獨伊防共協定의 成文과同樣의精神에서 締結될것인旨를 極히率直하게 言明한以上 이와가튼 疑惑은今日에잇서서는 撤回되어도 可할것이다 防共協定의 目的이 共產黨의 國際的陰謀를防止願望하려는것인以上 이理由에 立脚하야 同協定은 支那의蘇聯과의關係에 影響을及할것은아니다 그뿐만안니라 中國共產黨은 三民主義에順從할것가티誓約하고 그黨組織及 宣傳工作을 中止하고 邊境政府를 廢止하는同時에 또한그特別軍事組織을 廢止하고 中華民國政府의 法律制度에 絕對的으로 服從할것을誓約하엿다 三民主義란것은 支那國民의根本主義이며 따라서 祖國을 防備하는 我等의 義務를 遂行하기爲하야는 我等은 指導的且積極的으로 右主義와 背馳되는온갓組織과 宣傳을

強壓 치안허서는 안된다 第三點은 經濟提携이다 이問題도 同樣過去數年間에 亘하야 日本으로부터 提議되엇든것이다 그러나 現在까지 我等은 政治的混亂이 未解決된대로 남어잇는限 經濟提携와如함은 숙허 問題가되지안는다는 見解를 가저와다 그런데 今日 日本政府는 宣明하야 支那의 主權、行政的獨立을 尊重할것을 闡明하고 또한 經濟的으로 日本의支那에對한 獨占的支配나 目的하는바것이아니오 또支那에 對하야도 第三國의 權益制限을 要求하려는것이아니다 日支兩國間의 經濟的協力을 爲하야 平等의 地位로 立脚할것을 聲約하엿다 事態가 如斯하다면 吾等은 原則으로 이에 同意하고 그基礎上에 各種의具體的 措置를 協議치안흐면안된다 余는 以上과 如히 確信한다

國民政府는 上記三點의基礎우에서 速히和平을 回復하기爲하야 日本政府와 意見을交換할것으로 此際去十一月三日 日本政府의 聲明이 一月十六日 聲明과 相違되는것을 想起치안허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萬一國民政府가 上記三點을 和平討議의 基礎로한다면 問題는 當然히 解決될것이다 一年以上의 戰爭過程에잇서서 我國은 甚大한打擊을 입엇다 萬一我等이 正義에 卽하야 不和를

再建 함에는 國家의 存續은 維持되고 抵抗의 目的은 達成된다 그러고以上三點은 平和의 精神과 合致하는것이다 다시 和平條件에 關하여서는 我等은 그條件의 妥當性을 確實케하기爲하야 이에 慎重한 考慮를加하지안흐면 안된다 就中特히 重要한 點은 日本軍의 支那로부터의 撤退다 이것은 그 全部가 急速히 또는 各方面에 亘하야 一齊히 實行되지안흐면 안된것이다 또 提案된日支防共協定의 存續期間中 日本軍의 駐屯할 모든特定地區는 單只內蒙附近에 制限되지안흐면안된다 이點은 正히 支那의 主權及行政的 獨立領土權에 影響을及하게되는것이나 支那는 以上의 制限이 實行됨에依하야 비로소 戰後의 復興과 再建事業과를 遂行할수잇는것이다 日支兩國의 近隣關係에 鑑하야 中國及日本의 善隣과 友好關係는 極히 自然스러운것이며 且必要한것이다 正常狀態를 挽回하고잇는 現狀에 徹底的 再檢討를 加함이必要가잇고 日支兩國의 相互責任을 糾明하여야할것이다

日支 兩國의 恒久的平和增進을 爲하야서는 支那는 敎育、文化의 向上을 圖謀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他方日本側에잇서서도 支那에對한 傳統的侵略思想 態度及 征服思想을 抛棄하지안흐면안된다 如斯히하여야만 東亞의福祉를 求할수잇슬것이며 同時에 太平洋만이 아니라 널리 全世界에 잇서서 平和와 安定과를 確保코저 我等은 國際的 協調로 相互利益增進의 共通的大義를 爲하야 如斯한일에 協力하여야 할것이다 余는 이

內鮮一體縱橫觀

咸 尙 勳

歷代의 朝鮮總督은 各各 한개의 標語를 내걸고 赴任하얏다。寺內總督은 合併의 大詔勅에 依하야 一視同仁、日鮮同化를 標語로 하얏다。齋藤總督은 寺內總督의 所謂武斷政治의 反對語인 文化政治를 標榜하고나왓다。山梨、宇垣 兩總督은 文化政治의 一延長으로서의 敎育第一主義、農村振興主義를 各各 統治의 要諦로 생각해 왓다。南總督도 赴任하는 길로 統治의 標語를 내세워 內鮮一體라 하얏다。內鮮一體라함은 一視同仁、日鮮同化、日鮮融和、內地延長이란 對稱主義 에서 떠나서 兩族의 渾然한 一體를 말하는 全體主義의 積極的方面이다。內鮮一體의 實體를 說明하기 위하야 南總督은 道知事會議 議席上에서 左의 五大政綱을發表하엿다。日 國體明徵、日 鮮滿一如、日 敎學振作、日 農工併進、日 庶政刷新이그것이다。

國體明徵은 皇國臣民으로서 國民精神을 徹底히 認識하는것이나 敬神崇祖의 信念涵養、風俗習慣의 內地化、國語普及의 徹底等이다。

鮮滿一如란 朝鮮과 滿洲間의 文化、經濟、交通、治安等 各般에 亘하야 緊密한 度를 加하는것이니 日滿一如의 同意語이다。

敎學振作은 一視同仁의 立場에서 內鮮人間의 敎育的 差別을 撤廢함이니 敎育令을 改正하야 普通學校、高等普通學校名을 小學校、中學校로 統一하고 初等敎育擴充計劃을 促進하야 昭和二十二年에 義務敎育實施의 基礎를 삼고 이에伴한 中等學校를 擴充하며 志願兵制度를 實施하야 兵役義務의 向上을 함이다。

農工併進은、產業의農業第一主義에서 工業化過程으로의 轉換을 意味함이니 大陸進出의 兵站地帶로서의 朝鮮에 重工業을 建設하자 함이다。

庶政刷新은 行政事務의 刷新이니 지기 쉬운 弊害를 是正하자함이니 法令、制度、機構、施設의 改善을하는外에 吏道의 革新을 行하는것이다。

◇

要컨대 內鮮一體는 朝鮮과 內地를 一體로하고 따라 朝鮮을 內地의 水準에 올리자함이니 究極에 잇서서 一視同仁、內鮮融和、內鮮差別撤廢의 말과 同義語다。그러면 南總督이 赴任한지 이에 三年、그간 內鮮一體의 實은 얼마쯤 實現되엇스며 어느時期에 그것이 完成될가。

◇

첫재 國體明徵으로보면 到處에 神社가 創立되고 每朝 神社參拜者가 늘고 長老敎系 基督敎徒까지 神社를 參拜하고 國防獻金이 巨額에 이르고 皇軍의 後援에 眞誠을 다하야 皇國臣民으로서의 自覺者가 次大히 增加되어 內鮮一體의 實을 擧하얏다 할것이다。內鮮結婚率은 늘고 國語解得者도 늘어 風俗、習慣의 內地化가 顯著히나타낫다。그러나 全體의 配偶者數로 보면 內鮮結婚者가 一%에도 不過하며、國語解得者는 全體의 人口의 十%의 一도 未滿하다。

◇

다음 鮮滿一如로 보면 朝鮮人 移民이 百萬에 達하고 鮮滿國境을 貫通하는 鐵橋는 近十個를 算하라하며 鮮滿產業의 原動力이을 鴨綠江水電工事는 [illegible]로 進行되며 鮮人으로서 滿洲國에 高官高者도 相當한 數에 達하야 鮮滿一家의 機運은 醞釀해간다 그러나 滿鮮人移民은 區域을 定하야 그리고 年十萬이란 極少數의 移民이 制限되어잇고 數三의 朝鮮人高官이잇스나 五族協和란 意味와 內鮮一體란 語義의 解釋에는 同今까지는 滿洲及 朝鮮兩當局間에 多少見解가 다른모양이다。

銃後治安萬全에

警務局長 三橋孝一郎

乾坤一擲、[illegible] 皇紀二千五百九十九年의 新春을마지하야 삼가聖壽萬歲를奉祝하며 遠海外萬里異域에 有史以來未曾有의戰果를收得하는 皇軍將兵의武運長久를祈念하고 아울러一死君國에殉한 護國의 忠靈에對하야 深厚한敬弔의意를表한다

回顧컨대 大陸에出師하야 이미一年有半 御稜威下에 皇軍의 威武는 이제完全히 支那의中原을制하고 銃後의結束도또한日마다 鞏固를加하고잇슴은 진실로同慶不堪하는바이다 特히朝鮮에서는 事變의進展을따라 內鮮一體의實은 益益昂揚되고 治安도靜謐、言論報道機關도 잘 時局을正視闡明하야 時局認識의徹底、國民精神의昂揚에 寄與하야 銃後朝鮮의安固를 內外에顯示하야 事變窮極의目標인 東亞新秩序의再建、長期建設의大使命遂行의重要한一環으로 物心兩面으로 그重務를負하고도 餘裕가잇는것은 欣快하야마지안는바이다

回顧하건대 昨年中 朝鮮의警察은 前年에繼續하야 召集及徵發業務에 或은軍事輸送警戒에 또는軍機及資源의保護、防空의指導等事變下의警察要務에 繁忙하엿고 就中昨夏七月以來國境의 [illegible]에 發生한 張鼓峰事件과 그뒤를니어 咸南北兩道를 侵犯한 稀有의水害、黃海道及平安南道에서의 虎列刺發生等은 民心을 적지아니한 不安動搖를주엇스나 모두關係諸機關及 一般民衆의 緊密한 協力과 二萬餘警察官의 不撓한 努力으로 그被害를 最少限度에 그치어 何等 派生的事故도 업시 그終末을보게된것은 感激하야마지안는바이다 特히 張鼓峰事件에잇서서 現地民衆의 冷靜沈着과 軍部及警察에對한 積極的支援協力은 銃後朝鮮의 眞姿를如實히實證한것으로 진실로 於心에 든든한바이다

昨春에 實施된 朝鮮人志願兵制度는 이미그第一期訓練生을 兵營에 보내어 그實果를結하는날도 가갑고 또日滿獨伊防共樞軸의 內部的推進力이되도록 昨年十月에 創設된 朝鮮防共協會는 그後着着下部組織의 整備를보게되엿는데 新春에잇서서의 本運動은飛躍的發展을보게될것을 確信하고잇다

戰時下 高度의經濟統制諸法令의實效를確保하야 民衆生活의安定을圖함에 重要한役割을가진經濟警察制度는 客年十一月 그機構의 創始를보게되엿는데 本制度는 所謂國家總力戰에잇서서 最後의勝利를獲得키爲하야 不可避의 國家的要素에基한것으로 그實施結果는 當面한 國民生活에 直接重大不便을 將來할危惧도잇고 그執行에當하야는 萬全으로써 充分慎重을 期하고잇는바이나 國民各位도 그[illegible] 所以를 諒得하야 率先協力으로써 本制度의 實效를擧揚하야 聖戰의目的達成에 寄與하는바가잇기를 바란다

時局은 이제外에는 忍耐果敢한 皇軍의奮鬪와 內로는 國民의奉國團結에依하야 東亞民衆의 慶事를約束하는 光輝잇는 黎明이각가워지것을 볼수잇다 그러나今次의聖戰은 일즉부터 政府의聲明한바와가티 帝國의意圖하는바는 中國의潰滅이아니오 그更生에잇는바이다 戰勝後에 更히새로운建設과創造를 보게되는곳에 聖戰의意義가잇고 또그困難의容易치아니한 所以가 잇는바이다 戰果의跡에는 벌써新支那建設의 工作이 進捗되고잇는데 長期建設을爲하야 國民의覺悟할바 眞正한 困難은이로서따라서 銃後治安의 重責에任한 警察의使命은 新春을臨하야 더욱重한것을 痛感하는바이다 吾等은 玆에 一層士氣의緊張을 새롭게하야 全能力을 發揮하야써 上으로는 聖明에 奉答하는同時에 下로는 民衆의信倚에副하야 少毫도不測의禍侵을 內로부터 發하지못하게하고 警民相携로써 天業의恢弘에 微力을다하야 皇威를東亞의天地에 떨치게하도록念願하야 마지아니하는바이다

[illegible]를 利用하야 上京한 提案하고 此際[illegible]이 容納되기를 衷心으로 希望한다

一九三八年十二月二十八日

大野政務總監

歸任豫定變更

昭和十四年度 總督府豫算其他重要政務折衝과 第七十四議會出席次 지난十一月下旬頃 渡東해在中인 大野政務總監은 豫算復活折衝其他政務가 豫想以外로遲延되어서 到底히年來歸任은 不可能한形便이므로 東京에서 新年을맛고 一月十日頃에 歸任하기로 豫定을變更하엿다

本社辭令

十二月三十一日附

營業局次長代理 崔利福
任營業局次長

、社會部地方係主任 李宗洽
任地方部長

社會部運動係主任 高鳳梧
任運動部長

人事·集會

▲朴珥圭氏(財團法人應世農道學院代表理事) 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

多事多端한 戊寅年은 가고 希望만흔 己卯年은 왓다。

◇

大地에 朝陽이 照耀하고 萬物이 光彩를 띄엇다。

◇

오는 사람 가는 사람 新年을 致賀하고 어제껏 不睦하든이 오늘에 多情히 人事하니 新年의 기쁨이다。

◇

그러나 支那事變은 아즉도 끗나지안코 西歐엔 列强의角逐이 날로甚해가니 今年도 그다지 平穩하리라고는 期待難。

◇

바라건대 支那事變이 하로바삐 끗나고 新東亞의 秩序가 하루바삐서서、

◇

西歐列强들도 新東亞를 認識하고 새 世界의 機運을 釀成케하라。

◇

汪兆銘 香港에 와서 近衞首相의 聲明에 따러 平和解決을 꾀하겟다고 聲明。

◇

具眼의 靑가 新支那에 생겻군。新年의 新消息。

今日의重要論文及記事

本 一頁 新年頌 李勳求
同 二頁 內鮮一體縱橫觀 咸尙勳
同 三頁 『아름다운새벽』 連續讀物
附錄其一 大陸政策과朝鮮의改造
同 國境第一線의印象 吳快一
同 東亞新秩序建設陣總觀
同 統制經濟의强化 李[illegible]
其二 朝鮮人이본大陸貿易舞臺
同 義州開市의變遷
〃 戰時體制下朝鮮經濟界의要望 文一平
〃 中小鑛業家座談會
其三 朝鮮人의 朝鮮人의大陸進軍譜
〃 戰時生活現地體驗談 (李克魯氏金東世氏尹致旺氏述)
其四 大陸文學과朝鮮文學 金[illegible]
支那文學과朝鮮文學의交流 洪[illegible]
諺文小說과明淸小說關係 李秉[illegible]
漢詩絕句와時調關係 李熙[illegible]
戲曲春香傳과元曲과의對照 梁柱東
鄕歌와國風古詩

今日本紙新年號 合二十面
二日附夕刊은 定期休刊으로 發行치안습니다

謹賀新年
昭和十四年元旦
朝鮮日報社
朝鮮日報社員一同

諸織物直輸入都賣

東

東亞織物
販賣株式會社

社長 趙俊鎬
支配人 趙重洽

京城府瑞麟町壹番地
電話光化門③ 二二六 三三一 六六一 〇六三 番
振替口座京城五六番

年頭스포-츠界의快報!

比律賓遠征拳鬪

第一戰에我代表軍勝捷

3對2마니라大學과白熱戰

【마니라發電】 기묘연두에 드리는 스포-츠계의 통쾌한뉴-스 지난이십칠일에 『마니라』에도착한 롱구대표군은 내경제일전으로 이십팔일에 『맥킨레-』팀을 삼십칠대이십구로 단연승리하야 조선롱구계의 용명을떨리남해의섬나라에서 떨치엇거니와 한편 권투조선의 일류용사다섯명이 당지에내정하야 대기중이든바 이십구일오후여덜시부터 『리살·스타디움』에서 제일전으로 『마니라·내슈낼』 대학군과 격전끄테 삼대이로 일본대표군이승리하엿다 그리고 레슨경은 삼대일로 일본군이 쾌승하엿는데 권투의전적은 다음과갓다(사진은 상으로부터 최용덕、정복수、김명석제군)

【플라이級】 아리스코(比) 判定 金仁泰(日)
【밴탐級】 金明錫(日) 判定 아스트타(比)
【페더-級】 鄭福壽(日) 判定 바로마(比)
【라이트級】 모바스(比) 判定 康仁錫(日)
【웰터-級】 崔龍德(日) 判定 바오노(比)

南漢江에慘事

氷上通行中四名溺沒

【楊平支局電話】 양평에 어름우로건너가다가 네명이 한꺼번에 남한강(南漢江)에서 빠저죽엇다 경경선(京慶線) 공사장에서 일을하고잇는 토공사 이요한(李約翰)(三)등네명은 이십구일저녁에 그들의 일터인양평군 강천면아신리(楊平郡江川面我新里)로부터 강건너 강하면(江下面)으로술을 사먹으러갓다가 삼십일오전한시에 양서면 복포리(楊西面福浦里)와강하면과의 사이의남한강어름우로 건너가다가 그릇얼은곳으로 발을 드듸게되야 네명이모두 물에빠저 죽어버렷다 이소식을듯고 옥천면 및강하면 경관주재소원과 양평경찰서원이 삼십일오전에 현장에가서 일문들을 총동시켜서 시체를 건저여내엿다 죽은사람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

▲楊平郡玉泉面我新里 李約翰▲楊平郡江下面全壽里金辰衡(三) ▲鄭寅內(三) ▲鄭仁東(三)

暴力團殺人

유곽가의 폭력단이 일본도로 사람을 찔러죽여 섯달그믐의새벽거리를 피로물드리엇다 삼십일일오전두시경 정자옥(丁字屋)점원 죽삼청(竹森淸)(三)은 동료수명과 더부러 미생정(彌生町)유곽에서 놀다가 도라오는길에미생정 유곽근처에서 폭력단과싸움이 시작되여 쪼겨서오는길에 한강통(漢江通)삼번지의 오십이호압페 이르자 폭력단중의 한사람이 날카로운 칼로죽삼의 엽구리와 아랫배를질러 현장에쓰러지게 하고다라나버리엿스므로 동료들이 즉시죽삼을 자동차에실고 적십자병원에실고가서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곳 절명되엿다 급보를접한 소관용산서에서는 각서에 수배하고범인 체포에 노력중 미생정십번지 강영래(姜永來)(三)김신강(金信綱)(三)홍기조(洪起鋼)(三)등세명의 범인은 새벽다섯시본정서원의 손에체포되여 동서에서는상해치사죄로취조중이다

兎君年頭辭

여바타 엿주어라 토기생원드옵신다 월궁선(月宮仙) 토기생원 세배차로 드옵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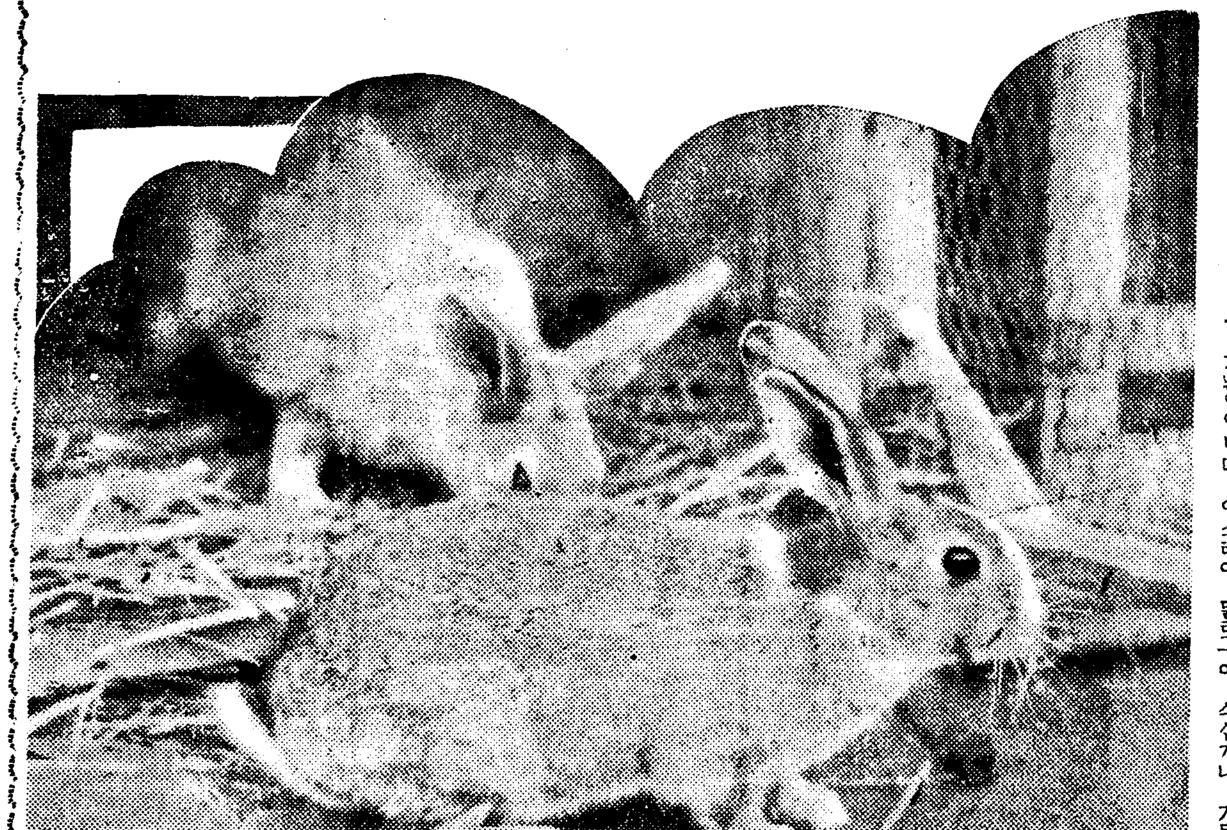
삽가 세배드리오니 복만히밧으소서 지난해 무인년(戊寅年)은 우악스런 호랑이해니 우람부락스런 일을도만히숭낭하오나 올해는천생순한 해오니 맘편노코지내소사

×

압다리가 몹시 짧어 흠사히 병신가트나 기막히사연을 아시나이까? 옛주린늙은이놈 승은히여져 내몸을 불사루어서 대접시키려고 모닥불에 불쑥 뛰여드러갓다는 〃인다라〃(因陀羅)의전설을 아시나이까?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희생의정신은 이처럼우리네 토기로선 선조때부터의 미덕(美德)이온지라 지난해그우악스런 호랑이놈과는 한사리에서 말할배아니오리다 올해도 한해동안여러분을 위하여 털도깍거드리고 가죽도 드리고기어히소용이 되시오다면 살까지도 서슴지안코 밧칠각오이오니 처하고 보잘것업는즘생갓사오나 버릴바는 업사오리다

×

다름질이야 뉘한테나질바아니오나 낫잠은 천성이라 어쩔수업서 느리고느린거북이놈과의 경주때에도 실수를 저질러서 여지껏그때일로 우슴꺼리가 되여잇사오나 올해가 내해라고 결코실수는 보밧지마시옵고 그대신 산으로 들로 쏘삽가티 닷는 우리의 뛰여뛰기를 본바더 빠르고세차옵소서



産聲의感激에쌔혀

새生命迎接二萬五千次

聖職의기쁨을말하는 東大門婦人病院 安壽敬女史談

먼동이 터온다 하늘이 붉으스레물들어 오는 아름다운새벽이와다 신년을하례가는 경성으로 고생도 낙으로알고 한가지 일에 몸을 바치거룩한때의 란생을기다리는 마음 그는 마치거룩과 밤으로천하에서 지리하게 헤매이다가 망명의 새날을맞는 무궁한기쁨의날인것이니 그기쁨이야말로 한때의우슴비저내는 그것이아니라 생활의 구든신념에서 오는인생의 법열(法悅)이다 이제천번우상한세상의 거츤물결속에 숨어엿파하의 인붙흘차저 어두운거리에 아름다운새벽의기쁨의 망영을보내고저한다

여기는 만호장안을 굽어보며 언제나 아침의 거룩한 새벽을 먼저바드며 언제나 기쁨의새생명이 뛰노는애기의 우름이그치지안는 낙산암마르텁우의 동대문부인병원(東大門婦人病院)이다 말하는분은 이곳 병원의 의사 안수경(安壽敬)여사이다 자그마한키에 단정한 자세를가진 이부인에게서밧는 첫인상은 맑고 흰 이마와 안경미테 빛나는두눈이 어데까지나 총명한것과거룩가튼 마음의 맑음을 보여주엇다 이부인 아니 이선생님이 이곳에와서 일하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이십년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부터 여기오셔서 이날까지 일을 보시엇다

×

누구나 다아는바와가티 이를은 병원이라하지만 실은 조선서는 최초의 최대의 산원(産院)이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이병원에서 이선생의손으로만 탄생의 첫소래를 울린아이가 적어도 이만내지 이만오천은된다는것이다 이가리하야 이선생은 오늘까지 시집갈것도 이저버리고 마흔 세살의 전반생을 이거룩한일에 바치우신것이다 기독교인인선생은마치 동정녀마리아처럼 순결하고경건한마음으로그만흔애기를 모두하늘의 독생자가티 비더내인것이다

◇선생은 그린듯이 안저서 이러케말한다

글세 이애기가 무슨이애기얘요하기는 오늘도 열한명의애기를바덧습니다 존자리에서손발을 보들보들하면서첫소래를 지르는것을 듯는것만이 내게는 무엇보다도 기쁨입니다 이소래야 말로 하늘이 내리시는 최고의 승엄한 음악이겟습니다 그런고 생각하니벌써수十해를 지낫답가요 그동안 바든애기수효는 지금당장에일수는업스나 금년만도 이제까지가 일천이백오십여명의 애기이엇습니다 그중에 사내가몃이 잇느냐구요? 천만에 그게오즉함입니까 사내면 어떠코 딸이면 어떠한말입니까 하기는 그랫습니다 예날이곳을 차저오시는산모는 대개가구식부인네들이엇는데 이러케고통을 하고애를나흐면 먼저뭇는것이 사내냐딸이냐를 먼저뭇고 딸이라고하면 우시는 이도 잇섯습니다 그러나지금은 신여성들이대부분인데 에 나코 먼저뭇는말은 아들이냐 딸이냐가아니고 애기가건강하냐 그부터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변천이요 사회의발달이라도몰납니다 그러치안허요 우선애기야 딸이건 아들이건 귀여운애기거던 첫째 건전한것이첫조건이지요

하며 애기의 예찬을 하고는엽방으로 기자를 안내해준다◇

아! 이게 어는천하냐! 하얀보재기! 아니 기저기에 정성스럽게싸혀너흔 동지가 한방안에 수십개나 가득이 노혀잇든데 이게모두 어제나 흠은 그제 또는 사오일전에 이세상에나온 갓난애기들이란것이다 그중에는 쿨쿨 잠이든것도잇고 또한편엔 빽-ㄱ 빽-ㄱ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우는것도잇다 이것이 말하자면 한집안의 열매의 봉오리요 한사회의 열매의 우슴꼬치지요

보세요 우는얼골이 더귀엽지안허요 이것이아프로한울이더길이탐스럽게 살려는생명의 움직임입니다그려 아니그뿐입니까 이애기의 생명의 움직임이 오늘날의 생명의 움직임입니다

파면그러타 어방중의 공기를혼들고잇는 이애기네들의 숨결의 적은파동은 장래엄지못하게를 바다의 파동이나 폭풍을생각케하는 엄숙이잇슴을연중에 느끼게한다 절로 머리가 숙어젓다

◇선생은 다시말을이어

그러니 내손으로 바든애기중에는 벌써 숙부살림은 청년이잇슬것입니다 간혹 그가누구인지 아는이도잇스나 대부분은 그후는 어데서 어떠케크고잇는지 알수업스나 그러나 내손에서 자란 애기들이 이 장안에서 또 이사회에서 무럭무럭 자라고잇겟거니 생각하면 무한히 기쁩니다 그래 아침새벽으로 내몸과 마음의 평안을위해 기도를 올릴때는 우리 이 애기들의 건강을위해서가티 복을빌게됩니다

고한다 한동안 바처 남모르는기쁨을누리고잇는 그마음이야말로 언제나 영원한 아름다운새벽이 깃드려잇슴을 다시금느꼇다

새해첫날은 아름다운 새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할것입니다▲불국사의 은은한제야종소리가 왼누리에게 경적과 함께복상을 주는가하면 그이튿날 첫새벽 기묘의첫날은 티업고 사(邪)업고 악(惡)이업는 세계가 열려야 할것입니다▲무릇 처음이라하는것은 착한것이올시다 그러것이 자라 크고 벌어지는데따러 티가묻 사가 덥피고 악이 범하는것이니다▲인류의 시초가 바로 그러햇거늘 아니라고 누가변명하리까▲제잡혀하고 새해의첫날만은 아름다운 새벽을가집시다 일년열두달 삼백예순다섯을 손꼽는중에 어찌하루의 첫새벽을 아름답게가지잔는데 거기에 티가끼이고 사가물고악이발악하리까

天氣豫報

豫報 今夜는 개엿다 흐렷다하며 明日은 개엿다흐렷다하고 저녁에는 눈이 조금나릴터이다

昨日最高 零下二度七
同 最低 零下十四度五
今朝最低 零下五度二
同日正午 三度一分

曆

▲一月一日(日曜)陰十一月十一日 ▲干支戊戌 ▲日出午前七時四十八分 ▲日南中午後零時三十七分 ▲日入午後五時二十五分 ▲月出 午後一時二十五分 ▲滿潮 午前九時二十八分 ▲月入午前二時二十五分 ▲滿潮(仁川)午前一午後零時四十五分

라디오프로그람

三十一日(土曜)

◇午後六時이야기『今年에생긴일』(雜感) 李軒求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守歲』 徽文中學 李秉岐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歲末風景 移動 안해나의街頭風景
◇同八時 歌謠曲 一、新닐니리 金永根 二、六字백이 申海中月 三、相思草 曺弄玉 三、朝鮮八景(金) 四、哀愁의旅路 五、上海街頭 六、알수업는運命(具) 七、에달픈追憶 八、恨만흔사상가 九、초록빗水平線(李) 金姬善 具松濤 李德華
◇同八時三五分 俗謠리레-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一、愁心歌와엮금 二、노래가락 三、六字백이 張鶴仙 金秋月 曺弄仙 大笒 金永根
◇同九時 라듸오드라마『정든공장』 —李孤帆作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아나운사- 一同
◇同九時四〇分(東)時報·曆·뉴-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一〇分 아나운사-餘技(京城) 合唱 一、二、三、四、五
◇同一〇時一〇分 아나운사-餘技(平壤)
◇同一一時五五分(各局)除夜鐘

一月一日(日曜)四方拜

◇午前六時(東) 鷄鳴
◇同六分二〇分(東)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一分(東) 吹奏樂 一、君ケ代 二、初春의前奏와行進曲 日出國 山田耕作作曲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 大沼哲
◇年頭辭 朝鮮放送協會長 士師盛貞
◇(譯)第二放送課長 沈友燮
◇同八時 —倭城臺總督官邸로부터中繼— 『年頭에際하야半島官民에告함』 朝鮮總督陸軍大將 南次郞 (譯) 田中德太郞
◇同九時 祭日祭賀況(國語) —朝鮮神宮拜殿으로부터中繼—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時報
◇同零時五分 音樂 一、步調 二、吹打와길軍樂 細樂 李 章 申 點 朴 永 元
◇同零時二〇分 뉴-스
◇同一時 愛國歌謠(레코-드)
◇同一時二〇 吹奏樂 同
◇同二時 合唱 同
◇同四時 뉴-스
◇同六時 一、새해인사 二、童謠組曲『토끼설날』 男女 李 崔 서울라디오동모 京城放送管絃團 伴奏 編曲과指揮 洪蘭坡
◇同六時二〇分 講演『新年展望』 朴榮喆
(一)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歌樂『萬年長歡之曲中』 一、羽調初數大葉(男唱) 二、羽調頭擧(女唱) 三、編樂(男唱) 四、編樂(女唱) 五、太平歌(男女合唱) 李王職雅樂部員 李炳禹 朴昌鎭 成和鎭
◇同八時 뻬이올린獨奏 協奏曲 맨델스존作曲 指揮雅樂師長 피아노伴奏 金元福 任貞植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토끼畫像그리는데』 朴初月 鼓手 韓成俊
◇同九時 野談『달나라의王』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九時四〇分(東) 時報·뉴-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京城府鍾路三丁目
織物商 東順德
電光 三六六 二一七〇 二六六七番

京城會社團
東洋拓殖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電氣株式會社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三菱商事株式會社京城支社
朝鮮鐵道株式會社
株式會社朝鮮取引所
朝鮮郵船株式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
不二興業株式會社
日滿商事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信託株式會社
株式會社住友本社京城販賣店

京城組合銀行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株式會社第一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安田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三和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朝鮮商業銀行
株式會社漢城銀行
株式會社東一銀行
株式會社朝鮮貯蓄銀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高級印刷
京城オフセット精版社
京城府三角町 電話本局 六二三七番

大陸ゴム工業株式會社
合資會社朝鮮ゴム工業所
中央商工株式會社
株式會社ソウルゴム工業社
世界ゴム工業合資會社
合資會社京城ゴム工業所
太平商工合資會社

尹致昊

三橋孝一郎

松澤龍雄

古川兼秀

伊藤榮治

西岡芳次郎

草間秀雄

林繁藏

高橋敏

牛島省三

朝鮮信託株式會社
谷多喜磨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三〇番地

鮮滿拓殖株式會社
總裁 二宮治重

井坂圭一良

朴榮喆

韓相龍

金大羽

賀田直治

武者鍊三

見目德太

渡邊彌幸

朝鮮製錬株式會社
社長 菊池一德
京城府太平通一丁目二十五番地

李鍾萬

崔昌學

朴興植

崔楠

金基德
京城竹添町

朴基孝

賀正

孟永玉

鮮滿拓殖株式會社
理事 渡邊豊日子

社團法人 朝鮮放送協會
士師盛貞

吳元錫
京城堅志町七番地

旅行中年末年始欠禮
咸錫泰
京城三角町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
神經科 內科 專門
醫學博士 李重澈

金桂祚

李俊烈

河駿錫

李永兆

鄭顯模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石川登盛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松本誠

阿部千一

土井誠一

朝鮮京城府黃金町一丁目六十三番地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大塚俊雄

鐘紡サービス京城支店
支店長 平賀三男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野田新吾

社團法人 京城土木建築業協會
伊達四雄

大倉商會京城支店
相羽恒次

京城府里門町二八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鑿岩機製作所
取締役社長 進藤鼎

新田義民

京城 三越
支店長 三輪邦太郎

金思演

宋祥九

辨理士 李采鎬
朝鮮特許代理局
電話光化門③二四七一番

共生藥業株式會社
閔奭鉉

安田慶淳

合資會社 任家莊
京城公司
任周彬
京城府鍾路壹丁目任家ビル
電話(長)光化門⑬二九一五番
本局⑪四三五一番

朝鮮無線工學講習會
朝鮮ラヂオ技術講習會
會長 曺光云

東亞金銀商會
金泰彦
京城鍾路
電話光化門一三三三番

京城府南大門通壹丁目參番地
鍾路洋服店
李斗鎔

高仁文
賣金座

朝陽紡織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洪在默
自宅 京城竹添町三ノ三
電話③一、三三三四番
會社 江華邑內
電話江華六、三四、三五番

江華窯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洪在龍
電話江華一三 六四五番

朝鮮日報
新年號 其一

大陸政策과 朝鮮의 改裝

兵站基地로서의 朝鮮
國防前衛로 突進
刮目할 産業經濟의 再編成

一、蘇支同時正面作戰論

前陸軍次官 東條中將이 던진 蘇支同時正面作戰論의 一言은 內外各方面에 非常한 波紋을 이르켯다。今日北支는 蒙疆方面으로부터 山西 南端、漢口의 兩作戰據點을 거처 廣東에 이르기까지의 萬數千里大陸戰線의 前線後線의 曠漠한 戰野의 複雜한 狀態가 버러저잇는 그우에 다시 滿蘇國境線 數千里와 沿海州一帶海面에서까지 戰鬪가 展開된다는 境遇를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驚天動地의 大事變이 아닐수업다 그러나 同題의 蘇支同時正面作戰論은 東條中將의 입을 빌어서 비로소 들린 警世의 提論이라고 볼것은 아니다。蘇支同時正面作戰은 보기에 따라서는 벌써 開始된지 오래다고보아도 조흘만큼 對蘇關係의 危機는 이미 오래前에 激化하엿고 同時에 그對備도 着手된지 오랫음은 識者의常識에 屬하는바이요 또張鼓峰事件은 그러한 經過가 비저내인 一例이기도하다 勿論戰端의 開始와 그準備와의 差異는 天壤의 隔이잇다할것이나 作戰準備體制下의 國力의 動員關係와 國民의覺悟如何라는 點에이르러서는 새삼스럽게 東條中將의一言에 놀랠것이 업는것이엇다

날라! 滿洲事變의 終結이벌서 國境線을 鴨綠江에서부터 黑龍江에로、對蘇準備의 體勢를 改備整頓함에 잇서던것이요 今次의 **支那**事變이 西安事件을 契機로 從來의抗日國民政府가 容共抗日의統一政權으로서 對日即時 開戰體勢로 急轉하엿든것에 基因하엿음을 볼수잇고 또그後 今日까지의 國民政府가 軍事와 政治의 兩面으로 蘇聯의軍事的實力과 共產黨의政治、軍事의活躍舞臺로 發展되고잇슴을 보고잇는이때에 이르러 蘇滿國境의 對蘇軍事關係는 얼마나 더緊迫하여젓을것이냐 하는것은 想像키어렵지 안흘것이니 이와가튼 情報에잇서서 大陸作戰이 北支에서 中南支에로 全支那에 全面的發展을 보게된以上 北方國境線에잇서 對蘇作戰은 應當同時展開를 豫想乃至準備를 하지안흘수업는것이라고 봄이 極히至當한것이 아닐수업다

여기에 大陸作戰 即 蘇支同時正面作戰의新體勢에 잇서서 朝鮮은 作戰行動本位의 新據點이 될것은 說明의餘地가업다 兵站基地로서의 朝鮮의地位는 여기에잇는것이다

二、朝鮮經濟改編의急템포

南總督의政策—即兵站基地로서의 朝鮮經濟의改編은 어떤곳에目標를 두엇는가를보건데 이는昭和十一年秋 總督府主催로 內鮮滿有力者를 網羅하엿든 產業經濟調査會의 答申案을遂行하야 그全貌를살필수잇는것이다 이는實로未曾有의大會合으로 將來할大陸作戰을豫定한 朝鮮產業의最高 政策을決定하는것이엇다 即그答申內容은

一、工業原料、農林產物의增產
二、農林產物處理方法의合理化
三、重要鑛物의探鑛獎勵 四、鑛業經營의合理的發展 五、電力統制計畫의圓滑한遂行 六、國策的國防工業에對한 特別한振興策遂行 七、其他交通貿易中小商工業의 振興策等

이엇다 이러한 目錄下에 再編되려는 朝鮮產業은 農林、鑛工業의併進을 前提로 動力의開發과 工業의 軍需部門의 振興이主眼點이되며 昭和十二年夏에는 그答申內容을 骨子로 朝鮮產業五個年計畫이 進行된것이다 그內容은 具體的으로 公表된것은업스나 이미 實行되고잇는點으로는

一、交通關係에 잇서서는 첫째 朝滿國境의 豆滿江 鴨綠江의開發과 아울러 兩地를 連結할鐵道의 敷設과架橋가 重要한것이엇다 그리고 港灣은 北朝鮮三港과 釜山、仁川、多獅島港等의 改築에依한 內地와의航路와 支那大陸과의 航路의 開發이主된것이다

二、電力開發은 滿鮮間의 協定에依하야 鴨綠江水力으로 百二十萬키로의 電力을開發하는同時에 西北朝鮮一帶에 一大工業地帶를 建設하며 그電力에依하야 鮮滿兩地에 工業企業에 基礎를 세우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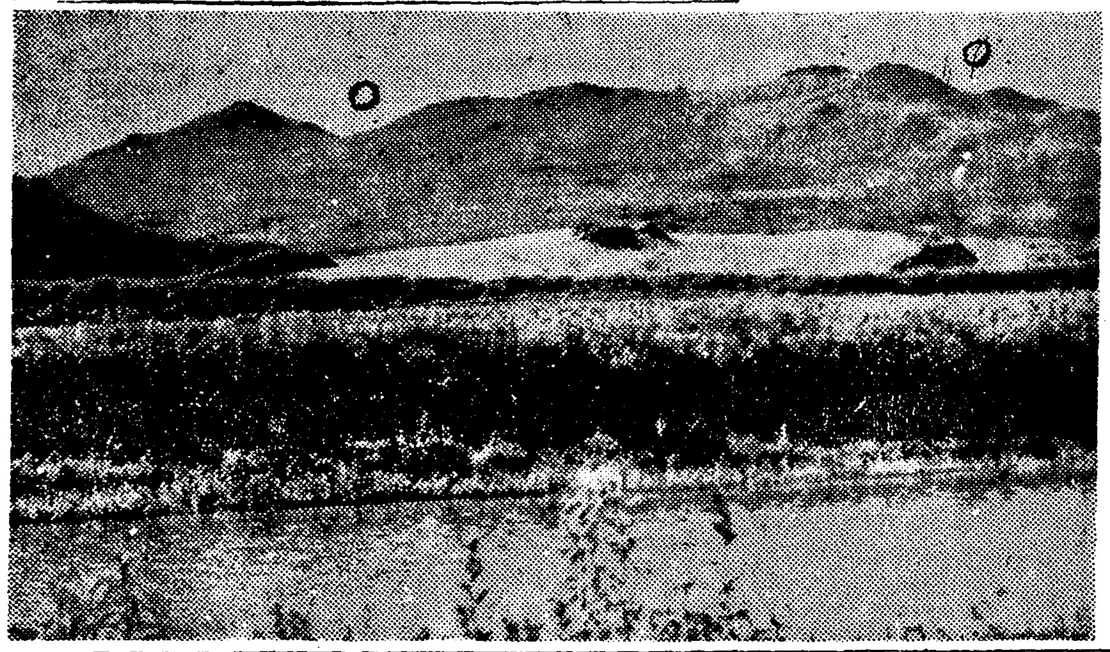
三、地下資源으로서는 그豊富함이 內地의類가 아니라 알미늄原料의 明礬石、마그네슘原料의 마그네사이트鑛、其他黑鉛、텅그스텐、모리부덴、망간、니켈等이며 鐵鑛으로서는 日鐵과 三菱이 大規模로 計畫하고잇는 茂山鐵鑛을 爲始하야 十億噸의 埋藏量이 잇다하고 石炭은 埋藏量十七億五千萬噸이라고 傳하며 年產二百餘萬噸에 達한다

이外에 軍需資材輸入을 爲한 入超補塡과 爲替維持를 爲한 產金은 現在年產一億圓未滿인것을 十三年以降五個年計畫에 依하야 二億五千萬圓으로 增產하려는것이다 이러한政策의 終局的目標로 殖產局長談으로 昨年正初에 傳한바를 要約해말하면 『石炭液化、燃料酒精、製鐵、輕金屬、造船、自動車、航空機等 化學工業乃至重工業의 振興』이란것으로되엿다 이러한 農工併進에 依한 經濟建設은 結局大陸作戰에잇서서 朝鮮經濟는 滿洲經濟와 一體가되여 滿洲經濟에依存치안는 兵站役割이 可能해야하겟다는것이다、모든政策은 이前提下에 進行되고잇는 此際에 大陸作戰의 內弧는 北西南方의支那에잇서서 이미廣汎한發展을 보아長期戰

長期 建設期에 드러간이라 이戰爭目的、建設目的의 達成을爲하야 全國力이 傾注되고잇거던 朝鮮經濟의 改編은 더욱 더욱 統制、計劃、管理下에 그 任務에 邁進케될것이다

三、食糧基地로서의 朝鮮米政策

開發未開發을合처서본 旣存의自然的條件下에 急템포로 朝鮮經濟의 改編을보게되며 各方面의 工業生產力을 擴充强化한다면 從來의 가장幼稚한 農業經濟와는 어떤 關係를가질것이냐 即農業生產力은 어떠케 發展되여야할것이냐하는것이 注目되지안흘수업다 當局內地에는 勞力의 不足을 傳하고잇고 朝鮮에서도 鑛工業、土木勞働力의 不足을傳하고잇다 이는 工業原料를爲한農林產物의 增產에도 關係되는바도잇스나 一面에는 朝鮮經濟의 大本이요、朝鮮農業의大宗인 米作—即 食糧問題의 前途에도相關된다할수잇다 食糧問題에關하는限 朝鮮은 兵站基地의役割이 全國的意義를 가진터이다 內地에서도 明年度에는 農事改良의 强行으로 米의 **增產** 이 一部計畫되고 잇다고 하거니와 朝鮮으로서도 當然히增產이 考慮되지 안흘수업다 特히朝鮮은 旱水災가甚하야 農民의生活이 年年脅威를밧고잇고 또小作條件이 不良하야 農村經濟의不安이 甚한點으로보아 農民의農耕地確保와安定(旱水災의對策上)을주어 一端緊急한時에 臨하야 食糧增產이 容易할것을 엿어둘 必要도잇고 따라 農民生活을 安定케하야 國力涵養에 資할必要가 더욱크다할것이다 따라서 農村의農產物의處理方法의 合理化라할것은 戰時下의 農事經濟의發展을爲하여서뿐 아니라 還大한理想下의 大陸作戰上 食糧의確保와아울러 國力의人的資源涵養의問題로서 [illegible]者의注意를喚起하는바크다



南總督	宇垣前總督
一、國體明徵	一、農山漁村振興
一、鮮滿一如	一、棉花獎勵
一、敎學振作	一、緬羊獎勵
一、農工併進	一、北鮮開拓
一、庶政刷新	一、地下資源開發
	一、滿洲移民

南宇垣 總督政綱比較

學制改革·兵制實施
"融和"에서"一體"로

統治方針의 大轉換

[illegible]司令官으로 [illegible]政에 重任을지는 陸軍大將의南總督의來任 그것은 곳朝鮮統治가 大陸政策의 新段階에 들어갈것이 明瞭히 表示되엿던것이라고 보아조흘것이 잇섯다 滿洲事變後 國力의 主流는滿洲國建設에 集中되여 그任務의完成이 全國力의發展을 意味하는것으로 되엿든만큼 이 建設의 首腦者 南大將이 國防第二線의 朝鮮에 來任케됨은 尋常치 안흔것이엇다

南總督의 第一聲은 鮮滿一如의 標語下에 全民衆의 眼線을 滿洲乃至 北支에로 一轉시키엇다 이가티하야 朝鮮、滿洲間의 關係를 緊密히하기에 主力하엿다 朝鮮人 移民問題의 새로운 諒解、兩地의經濟建設의提携、交通通信網의整備、朝鮮人官吏의滿洲進出等 兩地의關係는 倍前緊密하여젓다 이것은 곳鴨綠江、豆滿江을 國境線으로한 兩地의 地域的對立感을 一掃케하고 日滿一體의 精神下에 黑龍江을界標로한 防共國防線에 着眼케함에 그要意가잇섯던것이다 그다음에 南總督의 새標語로 提唱된것이 內鮮一體이다 日鮮同和도 內鮮[illegible]도 [illegible] 鮮一如에서、內鮮一體로 轉向한것이다 이는 [illegible] 主로한 [illegible]라든가 하는것보다는直 [illegible]朝鮮民衆을 [illegible] 國民으로서의 信念上 [illegible] 權利의 問[illegible]等을 [illegible] 內鮮兩族의 同族、親和感을 길게함에 잇서 [illegible]다勿論이 [illegible]은刮目할것이엇다

이러한 鮮滿一如와 內鮮一體는 무엇을意味한것이엇던가를 생각할때에 오로지 內鮮滿을通하야 日滿一體의建設精神의徹底、物心兩方面으로 大陸國策의 實施를爲한大動[illegible]

[illegible]것이 [illegible]라고 볼것이엇다

◇

南總督의 最大의政策으로 [illegible]에 것이 어욱고나타낫다 그것은朝鮮敎育令의改正에따른 學制의改革、朝鮮人初等敎育、中等敎育의擴充과 志願兵制度의實施 그것이다 勿論 大陸政策의內面에서 幾多의 新政策이 實施되엿다고는 할것이나 問題가重大한것은 二千萬의 朝鮮人을 大陸政策의코ー쓰에서 어떠케指導할것이나 하는것이 亦是最大의問題가 되지안흘수업다 [illegible] 東亞大陸의 百年大計를 [illegible]에서는 大陸兵站基地의 人的資源은 어떠케開發하여야 될것이나 하는것이 政治家의 最大의着眼點이 되엿슴은 當然한것이엇다

第二次의 敎育擴充計畫은 昭和十二年에 十年計畫으로 始作되엿던것이 十二年度에는 다시 五個年으로 短縮되엿다 이計畫의完成에依하야 學齡兒童의 六割을收容케 하려는것이고 그다음의 第三次計畫의 完成까지에는 義務敎育의實施를 본다는것이 前提로되엿다 이第二次 初等敎育의擴充에는 施設上 不足이업지안흐나 이는 過渡的事情이라고 볼수밧게업다 充分히 참을수잇는 苦衷의것이다 그런데 이와 倂行하야 實施된 學制의改革은 아직 그實際에는 미치지못하엿스나 內鮮共學을 原則으로한것이 特히 注目되는바 이다

그러고 志願兵制度의實施、이것은 將來朝鮮人의 兵役義務를 前提로한 劃期的新制度이다 特히 事變을 契機로한 朝鮮人의 愛國熱의發露의 結晶이라고볼것이다 여기에 朝鮮과朝鮮人에對한 認識은 새로운段階에 들어가고잇다고볼것이다

이제새해를 마지하야 東亞新秩序建設의步武는 日滿支의 三國

[illegible]에서 [illegible] 朝鮮에서도 이[illegible]運動은 그 自體內에서부터 [illegible]되는것이다 昨年七月을期하야 [illegible]된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의 活動이 곳 그것이 될것이다 內地에서도 적지안케 問題中이던 國民再組織問題가 最近、그形態를 가추게된 모양인데 內地의事情으로서는 政治經濟文化 社會各方面으로 旣成組織이 確固하엿든만큼 그再組織이라는것이 難題에 屬하엿섯을것이나 朝鮮으로서는 아직 未組織의狀態에 잇섯든터이라 一段의 [illegible]로 同聯盟이 出生되자 燎原之勢로 그組織은 中央과地方에 細胞組織을 가추게되엿다 거기에 川島大將까지 總裁로 推戴되여 그運動이 本格的으로 實踐될것도 今年부터이다 이聯盟이야말로 一國一黨的 體制下에 統治의 大方針에 協助하며 民衆을 統制할 絶大의 權威를 가지고 官民一致의 呼吸을 보이도록할것이다 이가티하야 東亞新秩序의 建設運動으로 聯盟을通하야 命令系統이 完全히 一元化하고 그 進展은 極히 急速해질것이다 여기에 總督統治方針의 轉換은 다시 새것을가저올것이다

(寫眞은 志願兵의閱兵)

國境第一線印象
張鼓峰事件과 北朝鮮의 地位

004337

本社咸北特派員 吳快一

支那事變勃發을 契機로 戰爭에對한 觀念과 國家觀念을 急速度로 發達되야 普遍化하는傾向을 보이고잇스나 戰爭이 國土外에서 展開되고 잇느니만큼 國防에對한 實感이란든가 또는 國境問題란 局限된 部分에對한 敎訓을 엇기에는 손 漠然한感이 잇섯다 이에比하면 過般의 張鼓峰事件은 國境이 얼마나 重要한것인가하는 貴重한 體驗을 우리에게 준點으로보아 大戰爭以上의 敎訓을주엇고 따라서 이에對한 印象이 어느戰爭보다 어느紛爭보다 더歷歷이 우리腦裡에 새여잇다 陸으로는 張鼓峰事件을 겨근國境問題가잇고 一方海上으로는 沿海州漁場을두고 紛糾가 떠날새업는 漁業條約이란 日蘇關係가 小康狀態에잇스면 比較的平穩하고 反對로 緊迫해지면 急激히 惡化하야 마치 日蘇關係의『바로메ー터』처럼된것인데 暫定協定의 最後關頭에 迫到한 昨今의 情勢는 今後 豫斷하기어려운바잇서 前者 國境問題와 아울러 日蘇關係를 律하는 가장큰『모멘트』가 될것이다 以上의 두가지紛糾가 다가티 豆滿江과 및 그江口를 境界사마 展開되고잇는限 朝鮮의 最北端인 이地方을 除하고 國防第一線은 存在할수업다 이제第一線에서 어들수잇는 昨今의印象을 몃가지 紹介하려한다

漁場의威脅

漁業條約이란 北樺太石油利權과 아울러 日本이 蘇聯邦에서 獲得한 利權中 最大의것이요 同時에 最後(?)의것인感을주고잇다 不當한壓迫으로 大小의利權回收에成功(?)한 蘇聯當局이 이것마저 回收하려고畫圖하는 心情은 넉넉히 推測할수잇스나 儼然한條約으로 어든利權을 그러케쉬사리 回收할 理由가업다

即 蘇聯側에서는 面子를重히하야 他國에利權을 준다는것은 自國의 不名譽스러운것으로 늣기고잇스나 日本側은 그와는反對로 漁場[illegible]의 經濟的評價가 압서고잇다 周知하는바와가티 沿海州漁場은 世界三大漁場의 하나로 鰮 靑魚를 筆頭로 實로無數한魚族이 棲息하는 無盡藏의寶庫이다 게다가 蘇聯側은 이漁場을 開發하기에 充分한技術的實力을 갓지못한데다가 廣大한 蘇聯內의 全經濟的領域에서 본다면그다지 重要한生產部門이 될수도업는 微弱한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問題를가지고 日蘇紛爭의 中心을삼어오는 本意가 어디잇는지 답답하다

그러나 漁場에對한 蘇聯當局의 不當한 高壓政策은 年復年加重하여지고 朝鮮漁船의 出漁에는 悲壯한決心이업시는 決行하기 어렵게된것이 昨今의消息이다 張鼓峰事件에 압서서 一年前인 昭和十二年夏節로부터秋期에이르는 期間의일을 回顧하면 漁場의 脅威가 얼마나 甚한가를짐작하기에 足하다 即朝鮮側漁船을 保護하기爲하야 出動한 總督府警備船 朝風丸을爲始로四十餘隻의 漁船과 四百餘名의漁父를 不法拿捕하야 抑留시키고 一方空中으로는 偵察機를 越境시켜 國際信義를 蹂躪하는等실로 言語道斷의 橫暴을 다하야 只今이라도 日蘇戰爭이 爆發되지나안는가하는危懼의念을주엇섯다

그後多少 緩和되어 今日에至하엿스나 張鼓峰事件以來 다시 惡化하야 지난번에는 咸北道水產試驗船인 白洋丸을 抑留한모양이니 例의高壓政策은 다시금 毒爪를펼치기 始作햇다 大體로 領海侵犯이란 口實은 漠然한것으로陸地와가티 固形된 境界標나 地形의起伏이 잇는것도 아니고 一望無際한 大海上에서 沿岸과의 距離가三海哩를 넘엇는지안넘엇는지 分別하기 어렵고 또漁撈作業을 하려면 魚群의行動을 따라移動할밧게 업는때가만코 또는 漁網을 내리고 停船한대로作業을 하여도 潮流關係로若干은 沿岸쪽으로 흘러가는것이 普通이다 이런經過를 全部領海侵犯이란 口實로 不法拿捕하는것이다 뿐외라 盛漁期가되어 出漁船의 數가만허지면 軍艦이 示威하고 空中에는 戰鬪機、偵察機가 不絕히 威脅을하야 荒波를 헤치고 漁撈作業에 從事하는漁船을 노리고 잇는狀態니 漁場의 不安은 언제나 解消되려나!

漁父의 歎息、漁場의 陰鬱모든것은 果然戰爭을보지안코는解決치 못할것인가?

바다의 第一線엔 危機가 步一步深刻해가고잇다

國境의妖雲

이땅에 自來로 兵亂도 만혓고 最近만하드라도 日淸、日露兩戰役을 모다겪근바이니 戰爭에對한觀念이 업슬理업지만 이번 張鼓峰事件처럼 現代戰爭의 現實感을 준때는 드물것이다 알기쉬운말로하면 朝鮮땅에 空襲이 잇슨것도 처음일것이다

蘇滿國境에 頻繁한國境紛爭은 世界的으로도 名物의하나요 그만큼危險도 集中시켜왓지만 今番事件처럼 深刻한影響을 끼처준例는 업다 그러면 果然現地에서는 어느程度의 敎訓과體驗을 어덧는가

첫째로 蘇聯軍의實力을 試驗하는조흔"찬스"를 어덧다 이에蘇軍의 强點과弱點을들면 强點으로는

一、物質的威力을 無視할수업는點
一、技術上의訓練이 相當한點
一、戰車隊의實力
一、射擊命中率
一、機關銃射擊의正確
一、通信連絡의迅速

等을들수잇고 弱點으로는

一、强襲에對한反擊力이 [illegible]하고
一、精神敎育의拙劣
一、赤軍將校와政治部員의軋轢
一、軍內部의待遇上不公平
一、"트로키스트"의存立

等의重大한 缺陷을들수잇서 今後의重要한參考資料가된다고한다

戰爭의現實感과아울러 國境의現實感도 이번처럼 切實히 느껴진일은 업섯다 大體로 蘇滿國境이란 總延長四千三百"키로"의 長距離國境線인데다가 大部分이境界가 明確치못한 까닭으로 一年에도 數百件의多數에 達하는 越境事件이 發生하야 或은戰鬪하고 或은退却하고 或은和平하는것이 恒茶飯이다

特히 紛糾가 不絕하는地區가

一、滿洲里方面
二、하바롭스크三角州方面
三、滿蘇東部國境—우스리河近處

의 三地域이다

그中 所謂滿蘇東部國境이라고하는 우수리河(烏蘇里河)沿線地區에서 發生한 事件은 그때마다 新聞을 賑[illegible]해주고 잇스면서도 [illegible] 헤일수업시 多數에達해잇다

綏芬河(포크라니치나야)에서 長嶺子 五道嶺子 水流峰 沙草峰 洋館坪 張鼓峰 臥峰에서豆滿江口에 至하는線은 相當히越境事件이 不絕하는바이나 한事件을 通하야 戰爭을 豫想하게된것도亦是張鼓峰事件이 처음이다

그만큼 日蘇關係는 가장危險한 段階에到達한것으로 보이고 잇다 今後로 發生할 事態를 豫見할수 업스나 이 以上 國境問題가 紛糾化한다면 日蘇間의 相剋은 그絕頂에 達하야 平和的解決은 마침내 絕望되고 말것이다 日蘇兩國關係의 終局的 破綻은 全世界破局의 發足이 아니될수업스니 日蘇破局의 伏線을 包含한現地—東部國境地帶는 危險率로보아 벌써世界的水準을 突破하고잇다

一線은健在

第一線을 부르짓고 잇슨지는 오랫스나 最大限의 體驗을 어든 今日의 第一線은 國防、產業、交通、運輸乃至 思想의 各分野에 이르기까지 完全無缺로 向하야 防備의鐵壁을쌓자 明日에對備하고잇다

第一線의 모든方面은 모조리緊張味를띠우고 北方하늘을 凝視하고 國家體制와 國家結成의"이데올로기ー"가 全然對蹠的인日蘇兩國이 四千三百"키로"의紛糾國境을가지고 게다가 一方이支那事變의 黑幕이되어잇는限 日蘇戰은 宿命的이며 時間問題라고할안흘수업다

國防第一線인 北朝鮮은 이가튼豫測下에 斷乎한 覺悟를갖고잇다『아무때나하번은 當하고말걸…』하고 중얼거리고잇다 陸으로海로 國境의 現實感과 戰爭의現實感을 뼈저리게 느끼고잇다 이것이 [illegible]업는 現地의 感想이고 [illegible]印象이다

(寫眞은 張鼓峰의 某處)

京城
金弘琯內科醫院
京城府中學町二六番地
電話光化門三一一三番

永保合名會社

全北特產温突紙中央一手販賣
朝鮮紙物 温突油紙 唐紙洋紙 卸問屋
全北紙物商會
京城鍾路四丁目
電話(光)一四〇

株式會社朝鮮取引所

東京建物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四丁目六六番地
藥品器械問屋
甲子商店 朝鮮出張所
電話本局②五九五〇番
振替口座一二九八三番

京城府仁寺町一三七
姜耳鼻咽喉科醫院
醫學博士 姜日永
電話光三七一〇番

京城府阿峴町七七
小兒肝氣散本舖
普生藥房本舖
電話光化門三〇九五番
振替京城一九六五八番

京城府中林町二三九番
朝鮮鐵工所
電話本局②八六三番

京城長谷川町二一
森永製品
朝鮮販賣株式會社

朝鮮運送會社

日產自動車販賣株式會社
京城營業所
ニッサン ダットサン
京城府竹添町一丁目九〇 (西大門交叉點)
電光③三〇三五 三二八八

京城西大門二ノ一
カレンダ・團扇 扇子・廣告マッチ 印入進物用品
旭商行
電話光③三八四一
振替京城二六六八八

京城府齋洞町一一二番
書籍文具 卸小賣
東光堂書店
李晶來
電話光化門③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朝鮮麥酒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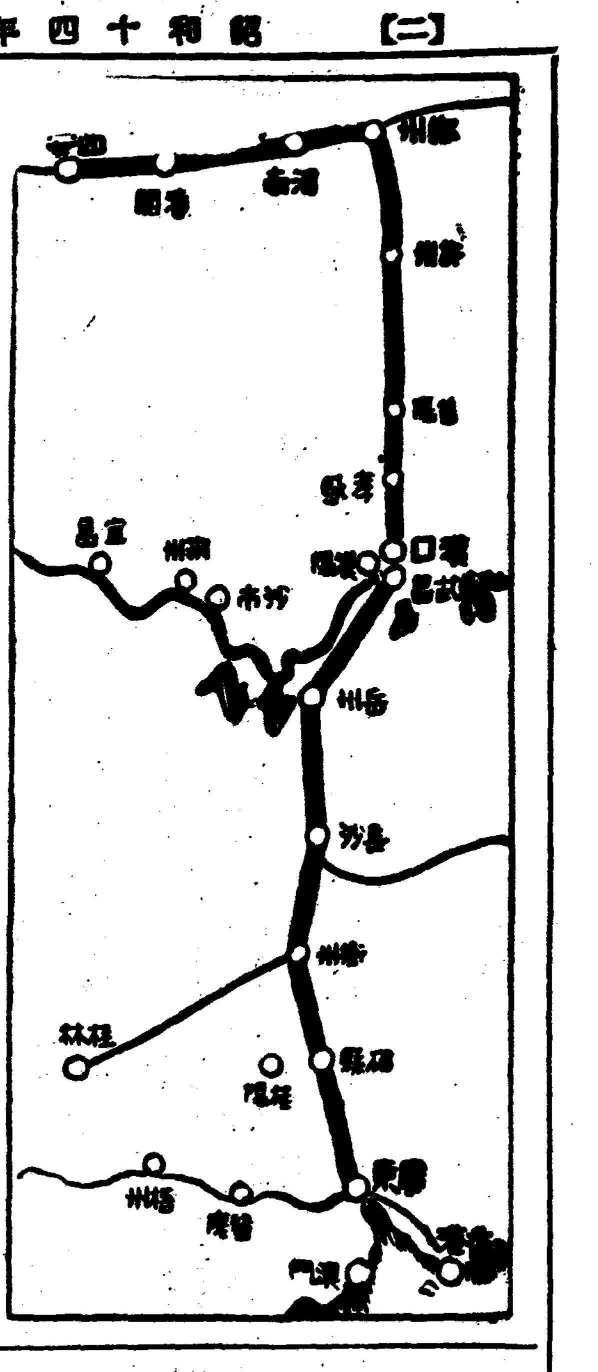
麒麟麥酒株式會社
京城支店

東亞新秩序

再昨年七月七日 蘆溝橋에서 爆發된 轟然한 砲聲을 信號로 東亞에 歷史的 新秩序를 創建할 大事役의 첫〃햄머〃 소리는 우렁차게 울리게 되엿다 軍事的으로는 北으로 內蒙과 綏遠으로부터 始作하야 南으로 廣東에 미치기까지 前古未曾有의 大戰線을 펴고 皇軍은 觸處에 連戰連勝 中原四百餘州를 席捲하야 이미 決定的 戰果를 獲得하엿고 軍事行動과 幷行하야 皇軍의 占領地區에서는 臨時政府 蒙疆政府를 비롯하야 漢口와 廣東에도 벌서 治安維持會가 設立되는 一方 經濟文化方面에잇서서도 建設事業은 着着進行되어 新支那의 面貌는 實로 躍如한바잇다 一面 內政

聖戰開始一年有半 中原四百餘州制壓

軍事方面 ——北支 中支 南支



①

再昨年七月七日의 蘆溝橋事件이 突發하자 帝國政府는 現地解決方針을 堅持하고 二十九軍代表者 宋哲元과 交涉을 開始하야 事件의 不擴大를 圖謀하엿다 그러나 二十九軍의 回答遷延에 加하야 郎坊事件、廣安門事件、通州事件等、支那의 不法이 接踵하고 蔣介石은 通州事件當日인 二十九日 抗日聲明을 發表하엿다 玆에 帝國은 決意한 皇軍은 即時 南苑、永定河左岸一帶를 確保하고 八月八日 北平에 入城한다음 津浦、京漢、京包、各鐵道에 沿하야 挾擊作戰的으로 進攻을 開始한 結果 八月二十五日에는 八達嶺을 넘어 張家口를 다시 十三日에는 大同을 占領하엿다 그後 涿州、保定의 大會戰에서 歷史的 戰果를 거두고 이어 正定、石家莊을 攻略하는 一方 京包線에 進出한 部隊는 傅作義軍을 擊破하야 包頭를 占領하고 山西에서는 忻口鎭의 頑敵을 殲滅하고 正太線을 確保한다음 山西省의 首都太原을 占領하엿스며 同年十一月에는 津浦線의 黃河를 渡河하야 同月二十七日 濟南에 入城하엿다 이로써 北支에서의 主要戰은 끗낫스나 아직도 山西를 中心으로 共產軍及 敗殘敵의 蠢動은 絶滅되지못하고잇스며 近日에와서는 [illegible] 益益 執拗한 遊擊戰을 續出하고잇다.

②

北支에서 戰端이 開始되자 上海方面의 形勢도 날로 惡化하야 同年八月九日의 大山事件을 爲始하야 支那兵의 陸戰隊射擊事件이 突發하고 支那側은 上海陸戰隊本部及 總領事館을 空襲하엿다 이에 第三艦隊司令官은 聲明을 發하고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야 戰爭은 中支에 飛火하엿다 上海戰局이 擴大됨에따라 帝國은 上海出兵을 決意하고 皇軍은 八月二十三日 羅店鎭、吳淞鎭에 敵前上陸을 敢行하고 逐次戰果를 擴大하는一方 十一月五日大兵을 杭州灣에 上陸시켜 上海包圍陣을 完成하야 蔣介石이 不落을 豪語하고 外國專門家도 三年間 持久를 云云한 上海는 三個月未滿에 마침내 皇軍의 制壓下에 入하엿다 그後 皇軍은 蘇州、常熟、嘉興의 線을 突破하고 敗殘之敵을 追擊、十二月十二日에는 敵의首都南京을 占領하엿다 戰局南京陷落後 一時膠着되엿스나 그後다시 徐州에서 展開되엿다 蔣介石은 徐州에 所謂〃蔣介石라인〃을 構築하고 李宗仁을 總司令으로하야 五十萬의 軍隊를 配備하고 防戰에 萬全을 다하엿스나 我軍은 南北으로 呼應 四月二日 合肥、[illegible]莊을 攻略하야 徐州包圍陣을 完成한다음 五月十九日 徐州를 完全히 攻略하엿다 蔣介石이 徐州를 死守코저한것은 武漢防衛上 必要에서나온것인만큼 徐州陷落은 武漢防衛에 致命傷이 되엿다 徐州陷落後 蔣介石은 保衛武漢의 聲明을 發表하고 民衆의 抗戰意識을 鼓吹하는一方 北은 大別山脈의 險을 利用하야 [illegible] 武漢死守를 豪語하엿다 그러나 我無敵部隊의 [illegible]

③

日에는 武漢三鎭을 攻略하여 支那中原을 完全히 制壓한것이다. [illegible] 武漢放棄를 決意하고 退却을 開始하엿다 이에 皇軍은 十月二十五日 漢口一角에 突入한다음 二十六日에는 武昌을 占領하고 二十七日 [illegible] 廣東省東南一帶를 確保하야 英佛等第三國의 援蔣루-트를 完全히 切斷하여것던이다.

武漢行營
城了入軍皇運武
皇軍의爀爀한戰果

杉山大將
畑大將
安藤中將
及川中將(海)

歷代大陸政策要覽

[illegible]

外交方面 反日系列의示威에 不動方針으로邁進

防共樞軸의 强化

帝國은 滿洲事變으로 聯盟에서 脫退한後 國際的으로 孤立狀態에 서게되엿다 그런데 昭和十一年十一月二十五日 日獨防共協定締結、同十二年十一月 伊太利의 日獨防共協定加入으로 말미아마 國際聯盟의 不公平에 不滿을 갓는나라、全體主義、또는 [illegible] 同으로 나아가고잇는 [illegible]

伊文化協定의 成文을 보앗는데 이協定은 日獨伊親善의 深化를 가장 端的으로 表示하는것으로서 近近 伊太利가 加入하면 日獨伊防共樞軸은 한便 文化協調樞軸이되야 親善에 一層더욱클것이다 十一月의 獨逸의 코물機의 訪日도 亦是 親善飛行이엿슴은 勿論이거니와 帝國에서도 獨伊에 相應하야 一月一日 프랑코政府를 承認 四月十五日 獨墺合倂을 承認 六月 日伊文化會館設決議 五月二十七日 靑少年使節團 獨伊派遣 十月二日 [illegible] 派遣이 잇섯고 昭和十二年 五月의 『正統』의 訪獨은 協定締結後 帝國最初의 親善訪問으로서 아직도 記憶에 새로운바이다

이와가티 날로 親善의 度를 더하여가는 日獨伊樞軸은 事變에 際하야 英佛米蘇等 反日系列國에 對하야 적지안흔 威壓을 주엇다는것은 序頭에서도 말한바와 갓거니와 伊太利에서도 事變이 勃發하자 一億八千萬圓의 對支貿易을 犧牲하야가면서 對支武器販賣에서 손을떼는 同時에 軍事顧問과 伊太利飛行家七十五名을 撤退歸國케 하엿고 일직 九國會議에서는 列國의 對日策動을 防止하는 役割을 하엿다 獨逸에서도 對支利益關係로 하야 이보다 느지기는하엿스나 어떠튼 五月下旬에 獨逸軍事顧問同四十名의 歸國을 命하엿고 最近에도 다시 二十五六名이 歸國하야 蔣政權에 적지안흔 打擊을 주고잇스며 일즉 日支調停에 出馬하엿든것도 獨逸이엿다 그러면 防共樞軸의 將來는 어떠케 될것인가 伊太利는 地中海에서의 活動을 自由롭게하기 爲하야 極東에서 英國을 牽制하는것이 必要하고 獨逸에서도 中歐及 東方進出을 爲하야는 蘇聯의 牽制가 絶對로 必要하다 그리고 帝國으로서도 東亞安定勢力으로서의 地位上 歐洲에서의 獨伊活躍이 그와똑가치 必要하다 뿐만아니라 獨伊는 한글가치 갓지못한나라로서 特히 伊太利는 支那에서의 諸國權益에서도 말하자면『오미트』된셈이다 따라서 日滿支經濟圈의 援助는 權益上으로도 希望을 부칠수잇는일이다 여기에 또한 防共이라는 共通된目的이 잇스매 將來 그結果는 더 구더지면 구더졋지 決코弛緩될理는 업다 이제 帝國의 東亞新秩序建設事業에잇서서도 獨伊는 반드시 [illegible] 第三國의不當한干涉에 對하야는 隱然中 防衛手가 될것이며 안으로는 손맛는援助者가되야 東亞新秩序建設에 欣然參加할것은明白한일로서 그樞軸의힘이 크게눈에 띄이지는안흐면서도 亦是 新秩序建設上 매우 큰役割을 할것이틀림업는것으로 보힌다

英米佛蘇의 援蔣

事變勃發以來 反日列國中 英國과 蘇聯이 物心兩方面으로 蔣政權의 長期抗戰을 積極援助하야오는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蘇聯은 反日國家中에서도 色다른立場에서 即中國共產黨을 媒介로하는 全中國의 赤化 또는 長期戰에 依한 帝國의 國力消耗를目標로 軍事指導官及 技術者 [illegible]

[illegible] 蔣政權의 長期抗戰을 積極支持하여왓스며 武器供給과 財政援助의 方法으로는 위선 全支那의 [illegible] 香港으로 集中시켯다가 事變이 擴大에따라 이것을 [illegible] [illegible]

現地關係 治安建設併行工作 新支那의面貌躍如

四億民衆의樂土建設에邁進

帝國政府의 對新支那關係은 지난十二月二十二日 近衛首相聲明 [illegible] 式으로 表明된 日支關係調整의 基本方針中에 明確히 表現되엿다 日本이 支那에 對하야 要求하는것은 領土도아니오 軍費賠償도아니다 [illegible]

政權을 組織케하야 그들로하여금 治安確保와 民民救濟等을 實施케하여왓다 現在 皇軍占領地域內에는 北支의 臨時政府、中支의 維新政府、內蒙의 蒙疆自治政府、武漢治安維持會、廣東治安維持會가 잇는데 廣東、武漢治安維持會는 아직 成立된지 얼마되지안하여 그治績이 볼만한것이 업스나 臨時、維新、蒙疆三政權은 成立된지 一個年又는 十餘個月式되야 北支、中支、蒙疆地方에 中心으로 各各 治績을 나타내여 날로 달로 그基礎가 鞏固해가는 中에 잇다 [illegible] 維新政府도 亦是 日本과 緊密한 連絡下에 上海海關接收 關稅改正을 斷行하엿고 中支一帶의 治安確保에 產業復興에 專力中이다

▲蒙疆聯合委員會

蒙疆聯合委員會는 防共、民族協和、民生向上을 標榜하야 昭和十二年十一月廿二日 張家口에서 察南、晉北、蒙古聯盟三自治政府代表間에 關印成立된것으로 蒙疆全行政을 統括하고 產業、金融、交通等 蒙疆地方의 重大事項에 關한 行政을 統轄하고잇다

▲武漢治安維持會

武漢治安維持會는 五十萬市民의 要望에 依하야 昭和十三年十一月二十日 漢口에서 成立式을 [illegible]

開拓을 試하게될것이다 周知하는바와가티 大陸資源開發에 對하야는 二大國策會社가 이미成立되어 北支에는 北支開發會社、中支에는 中支振興會社가 事業에 着手하엿는데 北支開發計畫은 石炭、鐵、電氣、鹽及曹達工業을 其統制事業으로하고 創設以來로 投資諸事業의 整備促進에 對하야 着着準備를 進行시키고 其他重要機關인 興亞院이 設置되엿다 開發會社及各子會社의 事業은 昭和十六年까지에 資金十四億二千萬圓을 限度로 하야 施行케된다

通貨問題

[illegible]

對支權益問題處理

[illegible]

京城府益善町九一番地
光東書館
金永完

胃腸良藥 電氣印治水本舖
洋藥漢藥 賣藥製劑
漢城藥館
京城府樂園町二〇九
電話光三七二八番
振替京城六〇七三番

京城府南大門通壹丁目壹壹參番地
興一社

遞信局健康相談所指定處方調劑
幼兒良藥 第一兒寶本舖 京城藥局
京城鍾路一丁目
電話光③二三七四番

一番正しい模範大全科發行所
永昌書館
姜義永
京城府鍾路二丁目八四番地
電話光③一五三二番
振替京城六二三一番

㊀
白商會

金浦運輸株式會社

㊍
洋品百貨 德永
京城鍾路

옷감專門店
九鼎商會
京城鍾路

京城府貫鐵町二一七番地
プロセスオフセット印刷
寶晉齋印刷所
電話光化門五七〇番

株式會社 以文堂
書籍、出版、雜誌、文房具
洋品雜貨、運動具、藥品
手藝品、和洋式大食堂
京城府寬勳町一三〇
電話光化門③一四八四番
振替口座京城一〇二七五番

京城府和泉町五番地
株式會社 同和藥房
電話光化門四八一 二七一九番
振替口座京城三二一八番

京城府鍾路六丁目二七六
大日本蓄音器株式會社
朝鮮營業所
電話光③二四九四番

活版・石版 オフセット プロセス製版 諸般印刷
日新印刷株式會社
京城府漢江通一五番地
電話龍山❶九三二番
振替 京城二七六四一番

建設陣總觀

있어서는 東亞의 歷史的 新秩序에 對應할 組織과 力量을 遺憾업시 集中하야 興亞院의 新設 國民再組織의 具體 民總動員態勢의 强化 經濟統制의 鐵水不漏的 整備等 新秩序에 對備할 國家的態勢는 完璧을 이루엇고 一方 로 中心으로 亂麻가티얼킨 列强權益關係의 調整에對한 根本方針도 確乎히 樹立되어 斷乎國策에沿하야 邁進할 로 우리는 여기서 軍事 外交 現地 內政에 亘하야 整備된 東亞新秩序建設陣容을 解剖詳說하야 一般의 認識을 코저한다

全國民의 總力集中

對支政策總本營、興亞院設置

中央關係

近衛內閣의變遷

擧國一致 國內相剋解消를 標榜하고 再昨年 六月四日에 成立된 近衛內閣은 豫想치 못하엿든 支那事變勃發에 遭遇하자 閣內不省의暴露와 戰局擴大에伴한 對支方針一元化問題와 國內各般革新政策의 停頓狀態로 去年四月에는 一時退陣說을 傳하엿스나 軍部와政黨方面의 全幅的支持와 徐州會戰의大捷을契機로 近衛首相은 時局擔當難局打開의 鞏固한 決意下에 敢然至難한工作인 內閣改造를 斷行 戰果達成에 卽應한 戰時內閣을 整備한것이 昨年五月二十六日의 第一次改造이엿다 卽戰爭目的遂行上 가장重要한地位를占한 廣田外務, 賀屋大藏, 吉野商工, 木戶文部(厚生相을兼任)等四相을 更迭하고 後任에는 一流의人物인 宇垣(外相, 後에拓相兼任), 池田(藏商相), 荒木(文相)에 等參議中三巨頭를 入閣케하엿고 數日後인 六月三日에는 戰時內閣의 主樞인 陸相을更迭 杉山氏를 軍事參議官에 親補하고 後任으로 大陸經營에 卓越한經綸과 實戰에 體驗이잇는 板垣中將을 拔擢하야 名實共히 戰時强力內閣을 編成하엿다 特히宇垣氏의 外相入閣은 그가多年政界의 感望으로 全國民의 注目을 集中하고잇던만큼 그의出現은 매우期待되엇스나 入閣後不過四個月만에 對支中央機關問題를 圍繞코 陸軍側見解와의 相違로 不得已合閣에서 떠나고말엇스니 그때가바로 九月二十九日이엿다 其後外相及拓相은 首相自身이 兼攝하고 後任銓衡에 努力하엿스나 候補者는 모두辭退하게되여 約一個月後인 十月二十九日에 비로소外務顧問이요 元外相이던有田八郎氏를 外相에, 그리고 滿鐵副總裁로잇던 八田嘉明氏를 拓相에 各其親補하여 今日에 이른것이다 以外에 昭和十二年 十月二十二日에 安井文相의 辭任으로 木戶幸一侯의 文相就任과 同年十二月十四日에 馬場內相의 後任으로 內閣參議末次海軍大將이 親任되엿든것이다

興亞院設置

近衛內閣은 過去半歲以上을두고 未曾有의 大事件인 今次事變을 處理할 中央機關을 設置코저 關係當局을 督勵 具體案作成에 全力中이던바 마침내 그 組織案이完成되여 樞府에 本會議서 可決되여 同十六日에 設立된바 그名稱은 興亞院으로되엿다 이機關은 支那에關한 政治經濟文化等各般에亘하야 互助의 聯環의實을 擧하며 中央과現地를 一體로하야 對支國策을 一元的으로遂行하려는것이 이機關의 使命인바 官制案을보면 人的構成으로는 中央機關에 首相을總裁로, 外, 藏, 陸, 海四相을 副總裁로하고 總務長官以下 政務, 經濟, 文化等三部外 技術部를두고 現地機關은 連絡部라하야 中央機關의 支那에對한 諸般事務를 連絡하며 主로新支那建設에關한 政治經濟及文化에關한 事務를 取扱케하는바 設置個所는 確定되지안헛스나 北支엔北京, 蒙疆엔大同 中支엔上海에設置說이有力하다 …東亞新秩序를 具現할 …使命을 띄고 …

東亞聯盟結成

未曾有의 國難을 克服하고 對支鐵則을 遂行함에는 國民의强力한 支持와 支援이 必要한바 確固한 基礎地盤을 가지지못한近衛內閣은 擧國協力의 組織體의 必要를 感하고 首相은前日 野、末次兩相에對하야『此際各方面 各階層을 糾合한 擧國協力의 組織體를 考究해주길 바란다』고 하엿든것이다。이委囑을바든 兩相은 政黨方面과 其他外部와 連絡을取하고 所謂新黨結成의 具體的準備를 急히하고 首相의 黨首出馬를 要請하엿던바 意外로 首相은『官製運動은 無意味하다 國民各層으로부터의 自發的意思에 基한 組織이라야 한다』는 理由로 拒絶을 當하여 新黨運動은 그만 挫折되고 말엇다 이것을본 風見書記官長은 野、末次兩相의 面目을 세우고저 木戶、有馬等 首相側近者와 提携하고『國民組織再編成運動』이란것을 提唱하야 國民各層、各階의 總網羅、新興勢力을 統合한 一大組織體를 形成코저, 方向轉換을 꾀하엿다 그러나 이것은 窮餘의 一策에 不過한 것이며 實際에잇서서 新黨運動以上으로 困難할뿐아니라 國民組織再編成이 一朝一夕에 形成되는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首相에게 容認되지못하고말엇다 그後 이問題에對하야 獨自的見解를 가진 荒木文相의 提議를容納하고 四相會議를擴大하고 八相會議서協議한結果 國民再組織運動은 …「國民精神總動員强化」라는 方向으로 三轉、再出發하기로되엿던것이다

國內行政機構改革

近衛內閣은 長期建設에 對應할 國內行政機構改革을 斷行코저 內閣制度、議會制度、官吏制度、樞密院官制 等에對하야 各其委員會를 設置하고 改革에 全力케하여오던바 官吏制度에잇서 官界沈滯를 一掃하고저 身分保障令을 斷然撤廢하고 野에遺賢이업도록 人材登用의 道를 開拓코저 自由任用範圍를 擴張한것을爲始하야 歷代內閣의 懸案이던 樞密院官制 改正案을 斷行하엿스며 議會制度에잇서서는 選擧制度를 改革(現行中選擧區를 大選擧區로)하야 理想的人物을 國民의代表로 選出하려고한것과 또한 議會制度改革의 中心議題가되는 貴族院制度에잇서서는 아직如意히 進捗되지못하엿스나 改革이必要로보이는것은 貴族議員의減少、多額納稅議員의全廢等이며 새로 職能代表議員을 選出코저 努力中이다

蘇支二正面作戰

現在蔣政權은 上海、南京、武漢、廣東等 沿海産業交通의 中樞地帶를 喪失하엿음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頑强한 抗戰을 繼續하고 잇는것은 英佛로부터의 第三國의援助와 西南으로는 英佛로부터 西北으로는 蘇聯으로부터의 物心兩面의 支援을 밧고잇는때문인것은周知의事實인데 東條前陸軍次官談에依하면 蘇聯은 我國에對하야 早晩 不可避的 運命에處해잇는 日蘇衝突에對備코저 極東兵備를 增强하고 重工業及交通施設을 整備하는一方 日支事變을 長期持久戰에 陷入케하야 我方의戰力을 消耗케한後 他日 日蘇戰時 有利한情勢를 招來케하고저 劃策하고 잇는것은 幾多의 事象에 비치어 疑心할 餘地가업다고하며 따라서 軍이 東亞의 新情勢에 對處하야 東洋永遠의 平和確立과 新秩序建設을 爲하야서는 抗日蔣政權을 徹底潰滅시키기까지는 斷然徹兵치안는同時에 巨大한規模로써 極東兵備增强을 開始한 蘇聯에對하야 我國防安全을 期함을 目的하지안어서는 안될것과 今後는 不得已 蘇支二正面에對한 武力同時作戰을 準備할必要에 直面되여잇는때문에 人馬資材의全力을 傾倒하야 新軍備를 建設하여야 한다하며 軍에서는 今後事變處理를 完遂하는 同時에 將來를爲하야 蘇支二面戰爭을 準備하고잇스며 그런後에야 비로소 支那事變의根本的解決을 求하고 東亞永遠의 安定을 招來할수잇다는것이다 … 生産의 飛躍的擴大 及 … 生産力擴充에適應하기를期한다」云云하바 이것으로보아 蘇支二正面作戰準備는 實로東亞永遠의 平和確保와 新秩序建設工作과는 不可分離의 密接한關係에잇는까닭에 그準備는 焦眉의急務인것을 알수잇다

◇寫眞上으로부터 近衛首相、板垣陸相、米內海相、池田藏相、宇垣前外相、荒木文相、木戶厚生相、鹽野法相、末次內相、… 興亞院總務長官

統制經濟의强化

李健赫

事變

勃發後의 統制經濟의强化는 三階段으로 나눌수잇스니 첫재는 事變初期를 재는 戰爭最高潮期、셋재는 長期建設期의것이다。卽昭和十二年七十二臨時議會에서 制定된 臨時資金調整法、輸出入臨時措置法等의 應急的統制는 事變을卽應한 戰時統制策이엇고 昨年末에發動된 國家總動員法第十一條全面發動은 一面戰爭、一面建設의 大目的을遂行키爲한 恒久的統制政策인것이다。 지금까지의統制經濟的으로解剖해보면 一、個別的、平面的、直接的、對症的이어서 全體的、有機的、綜合的、立體的이 아니엇스며 二、指令的、消極的이고 積極的이 아니엇다 따라서 國民의 道德心鼓舞、高利潤、免稅、損失補償가든 特典으로써 積極方面을 遂行할수바게업섯든것이다 勿論 大資本家本位에傾하고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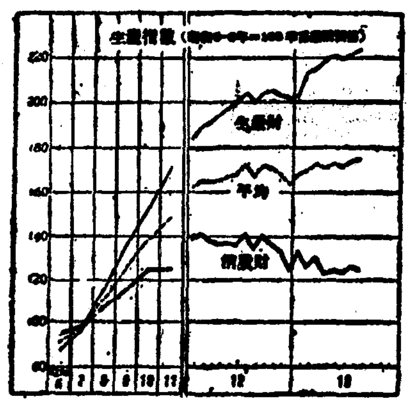
小商

工業은 逆境에 잇는것이 事實이엇지만 以上과가든 諸統制를가지고는 今後 바랄수업고 長期建設의 大目的을 遂行할수업게되엇다 武漢三鎭陷落으로 戰鬪行爲가 一段落됨을 轉機로 事變은 長期建設의 新段階에 進展하얏다 이른바 建設이라는것은『東洋永遠의 平和를建設』한다는것으로 今後는 重要資源을 開發하고 諸般의經濟施設을 完全케하야 政治、經濟、文化等各方面에亘하야 日、滿、支를 一體로하는 一大協力組織을만드러야하게된것이다 國內의 物資와 資金을 有目的으로 爲하야 모으고 가장 有效한方面에 使用케되엇스니 從來의 自由主義的 頭腦로서는 今後에 經濟해갈수업다 國際收支를 適合하며 資源을開發하고 生産力擴充에努力하야 物資需給의 適合을 圖謀하며 이에必要한資金의 調達을圓滑케하는同時에 通貨의健全을 保持해갈 必要가잇다。

李健赫

東亞

新秩序建設을爲하야 時局을 突破하는 不動의大方針을遂行함에 …



推算

…

國民

…

過去

…

寫眞說明 右上으로부터 뭇솔리니、첨벌린、리트비노프 中上으로부터 히틀러、有田外相、이든 左上으로부터 루즈벨트、달라디에、카英大使

臨時政府

昭和十二年七月七日 蘆溝橋事件을 契機로 北支事變이 勃發하자 北支에는 從來存在하든 冀察政務委員會가 機能을 喪失하야 各地에서 組織된 治安維持會에서 治安을 維持하든바 … 南京이 陷落된 翌日인 昭和十二年十二月十四日 北支 中華民國臨時政府는 北京에서 成立式을 擧行하엿다 …

維新政府

維新政府는 皇軍의 中支方面의 作戰進展에따라 昭和十三年三月二十八日 南京에서 … 成立式을 擧行하엿다 …

關稅問題

…

天下珍品金剛山松實問屋 內外物産 有光商會 京城鍾路大門市場 振替京城八〇三三番

京城府積善町二五 大力丸本舖 京城藥業社 電話光一八〇八番

蔘茸エリトーゼ總販賣元 京城貫鐵町一六一 三省聯合新藥研究所 電話光化門八一三三 振替京城二三九二七番

傳導裝置、工具類シャフトプーリ 諸機械卸問屋 太平鐵工營業部 李周儀 京城驛(蓬萊町一ノ七七) 電話長本局一〇九三番 振替口座京城二八〇〇二番

京城靑葉町二丁目一二五 眞鍮、砲金、銅 アルミニューム鑄物 ゴム靴金型鑄造 其他諸鑄物一式 高一權鑄作所 電話龍山❶一〇七六番 二三二二番 電信略號(コ)又(고)

京城鍾路二ノ永保ビル 佛蘭西料理 永保グリル 電話光化門❸六三九番

海草精本舖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京城府鍾路六ノ二六七番地 電話光❸四〇六九番 振替京城二二〇九番 私書函光化門局五〇八番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東亞手袋工場 主 李鎬胤 電本五九五七番

金基德 鑛業事務所 鑛物分析定 鑛山測量 鑛山設計 鑛業調査 鑛業相談 京城鍾路一丁目 任家ビル二階 電話光化門❸二〇七八番

蔘茸トニク製造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鍾路三丁目

京城府太平通二丁目 藥種貿易 賣藥製造 濟生堂藥房 電話本局❷一七二八 六四五七番

004338

京城竹添町 東洋劇場 電話光化門 三六四〇(事務所) 二五四四(劇場) 直營 京城劇團 靑春座 劇團豪華船 城撮影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東拓ビル內 合成鑛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龍雲 電話 本社 本局七七六番 自宅光化門二一二五番

京城府堅志町 大同鑛業株式會社